

Contents



issue

기획특집	낙태, 재생산권,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들	
	- 출산을 선택한 십대여성들	2
	- 임신과 낙태에 있어 장애여성의 선택권	4
	- 성판매 여성의 낙태와 재생산권	6
	-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8
	- 재생산의 권리와 의무, 남성은 어디에 있는가?	10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학교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12
	여성보호, 됐거든요!	1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 다녀와서	20
	남성중심의 스포츠 문화와 성폭력	23
	8년전 피해 증명을 위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오라구요?	27
	국가 상대 2차피해 손해배상소송 승리	29
거꾸로뉴스	군내 스토킹 사건의 이모저모	32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상담자가 아닌, '친밀한 그녀'	34
생존자 말하기	水の 이야기 - 연재 10th 「산1-1번지」	36
	말하기로 가해자를 고발하다 2nd	40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44
	열린터 소녀들의 꿈찾기	45
	2박3일 <발도르프 학교> 여름캠프 릴레이 후기	46

edu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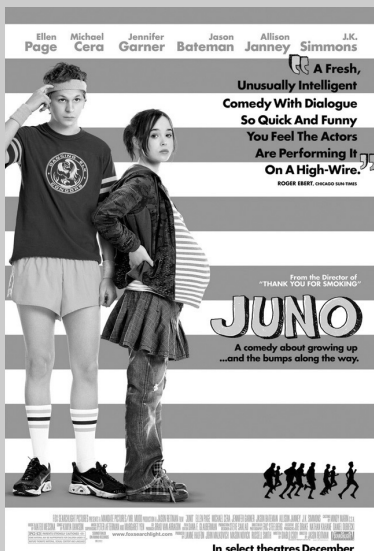
몸이야기	연재1/3 - 알고 싶다면 하라; 체현	51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이즈 인권 운동 단체 카노스를 만나다	54
이런 프로그램	영화 therapy - Healing Cinema	56
소모임 생각	토닥 고정칼럼 3rd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를 읽고	57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58
사업 review	릴레이 시민토론	60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61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	62
	법률봉사연수를 마치며	63
	7월 4일에 5회 달빛 시위대가 떴습니다	64
사업 preview	2008 여악여락 콘서트 / 직장내성희롱 토론회	65
회원소식	안식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며	66
	소모임 활동 / 훈훈한 기부	68

“출산을 택한 십대여성들”

◎ 전 한국성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정애



▲ 10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다룬 영화 「JUNO」(2007)

한국사회에서 십대는 ‘아직 성년이 안 된’, ‘미성숙한’, 그리고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제는 성인/십대와의 위계적 구별을 내포하는 것으로, 성인의 십대에 대한 우월성과 동시에 십대들에 대한 권리유보와 제한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나이에 준거한 규범의 형성은 섹슈얼리티,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경험에서의 ‘적정’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십대들의 섹슈얼리티, 임신, 출산을 비합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십대의 임신과 출산은 늘 낙태담론, 미혼모 담론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 즉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엄마로서 재현되거나 임신의 결과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일반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십대임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한편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영향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십대여성들의 ‘무분별한’ 성태도, 도덕적 해이로 귀결시킨다. 최근 미혼모담론이 개인일탈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피해자로서의 미혼모관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담론 안에서 미혼모는 예방되어야 하는 또는 ‘사회복귀’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문제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여기서 이들이 왜 성에 접근하는지, 왜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맥락들은 삭제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의 임신이 모두 원치않는 임신이며, 따라서 당연히 낙태 또는 불가피한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기존의 십대임신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은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하는 십대들의 출산, 양육선택의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임신은 원하는 임신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으로 그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며, 심지어 이들은 임신의 동기와 무관하게 임신을 의미화하거나 아이를 욕망하기도 한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십대여성들을 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임신한 십대여성들은 자신의 ‘우연한’ 임신에 대한 딜레마를 낙태보다는 출산으로 해

결하고자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낙태비용, 낙태에 따른 건강문제, 심지어 낙태이후 불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초음파 사진속의 ‘아이모습’ 등은 이들로 하여금 낙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낙태를 결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임신이 주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출산선택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임신이 ‘나쁜 짓’을 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게 연애는 삶의 즐거운 경험이며, 일상을 유지하거나 의미를 가져다주는 경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 결부되는 친밀성의 섹슈얼리티는 이들의 관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은 이러한 관계에 수반되는 부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십대들이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임신을 한다고 모두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집단 내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계층변수는 이들의 섹슈얼리티, 임신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즉 저소득층 십대여성들의 생활세계의 변화, 가족과 학교에서의 분리, 남자친구와의 로맨스와 동거생활, 또래문화, 노동자 지위 등의 일련의 경험은 이들의 삶의 전망을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다른 삶의 전망은 이들의 임신을 둘러싼 선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말하자면 십대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가족 밖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순차적인 정상규범의 질서를 벗어나 모성이 결혼과 교육에 선행할 수도 있다는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출산선택에 대한 고민이 자신의 모성지위와 자격, 또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양육의 물적 조건에 달려있다는 점은 반대로 양육을 위한 사회적 조건이 허용된다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십대여성의 임신, 출산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담론은 십대임신이 문제적이며, 예방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임신한 십대여성들을 성일탈자, 사회적 문제로 위치시키고 있다. 임신이 학교중단의 이유가 되고, 모성자격이 의심된 채 입양이 권유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십대모들의 열악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규범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담론과 십대여성들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금, 이를 풀어내는 노력은 이들의 임신, 출산 경험이 십대 성운리의 문제이기 보다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미혼모’라는 윤리적 관점 안에서 간과되었던 이들에 대한 재생산적 관심이 요구된다. 재생산권은 남성과는 다른 ‘생물학적 가능성’을 갖는 여성들의 권리로서, 나이와 결혼을 넘어서는, 여성들의 삶의 권리,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복잡한 맥락들 안에서 실현되는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이는 여성들이 재생산권을 향유하는데 있어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



임신과 낙태에 있어 장애여성의 선택권

◎ 장애여성공감 지성

◀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의 한 장면

이명박대통령이 일전에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장애아 임신 등에 있어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그의 말 자체보다 더 우려됐던 것은 그 발언을 두고 벌어진 엄청난 파장이었다. 한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 그의 발언이 가지는 엄청난 파

급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확실한 반대의 논리들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여기 저기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이런 과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편파적으로 몰고 가기 십상일 테다.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 : 장애/낙태/생명존중 숨은 그림 찾기

이따금 언론이나 텔레비전에서 장애아동들은 물론 그들을 가진 (장애유무를 떠나)여성/어머니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차별과 폭력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들의 딜레마와 고통은 개인의 운명이나 희생적 모성으로 환원되고, 쉽게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던가?

장애인권 진영은 이명박 발언 후 ‘차리리 장애인을 죽여라’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사회 장애인들의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에서의 장애인 배제가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발언은 국가

의 이와 같은 방임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한편, 기존에 낙태 찬반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작 행위자인 여성의 시각은 언제나 소외되어온 것처럼 장애/낙태 논쟁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이 비장애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장애인의 출생권 사이에서 장애여성의 입장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인권진영 등 이명박의 발언에 분노한 사람들은 ‘여성’의 입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상중심의 사회에서 '생명존중'이라는 허구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를 범죄화하는 가운데 일부 낙태를 허용하는 특별법 형식의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낙태를 금지하는 규제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것이 생명경시풍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국가가 모성보호 및 양육에 대한 제대로 된 담론이나 정책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장애인/청소녀/성소수자/비혼모 등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생명존중'이란 추상적인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자보건법 상 낙태허용 사유 중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즉 국가가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사고는 지극히 정상성 중심적인 국가이데올로기의 폭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는 유전적인 소질, 또는 특수 사정에 의하여 태아가 치료 불가능한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확실한 근거 하에 선천성 장애가 있는 경우 낙태 허

용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 사유를 들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며 태아의 '손상'의 개연성과 강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우생학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이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 요인들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장애나 질병 각각의 허용여부를 섬세하게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뚜렷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생학이 낙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뚜렷한 과학적 근거란 애초에 성립되기 불가능한 것이며, 결국 우생학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장애/정상중심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국가마다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를 인정하는 배경에는 부분적으로 여성/어머니 또는 부모에게 아이의 질병이나 '손상'으로 받게 될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숨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태어날 생명의 질병/장애/손상의 유무에만 있는가? 또 여기서의 '양육'이란 개념은 어떤 여성의 시각에서만 구성되고 있는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장애여성의 선택권은?

중증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가족이나 보호자들에 의해 자궁적출 및 불임수술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필자가 활동하는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에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이 생리를 시작했는데, 생리처리와 임신의 우려 때문에 자궁적출을 해야하니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줄 수 있냐'는 어머니의 상담전화와 길러와 난감했던 적이 있다. 의학 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지적장애여성들의 성과 삶 전반에 있어 엄청난 통제를 가하게 된다. 장애여성공감위원회에 있는 지체장애 여성들 다수가 10대 때 한번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 의한 자궁적출 시도를 경험했고, 결혼을 한 한 여성은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아이는 낳을 생각도 말라'는 식의 조언 아닌 조언을 듣기도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정상성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장애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한다. 또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심각성, 장애/비장애를 막론하고 양육과 돌봄이 여성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는 젠더이분법구조 그리고 계급, 연령, 성적체성, 장애 등에 따른 차별적 문화가 '정상적 양육'이라는 규범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 등. 이 속에서 장애여성은 너무나 당연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임신과 양육, 낙태에 있어 장애여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다만, 얼마 전 이명박 발언을 둘러싸고 보여졌던 것과 같이 장애인의 출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반 낙태'로 단순화되는 것과 같은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장애여성을 포함해 주변화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인가를 짚는 데서부터 다양한 진영 간의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들의 '선택'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상' 혹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규범이나 윤리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규범과 윤리를 상상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

성판매 여성의 낙태와 재생산권

다양한 삶의 조건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 막달레나의집 현장지원센터 주최

현재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범죄 행위이다. 법의 언어를 빌어 여성들에게 피임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하지만 여성이 피임에 관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성공률이 100%인 피임법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낙태가 범죄라는 명제는, 아이 낳을 계획이 없는 여성은 남성과 섹스를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근엄한 경고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아이 낳을 계획과 무관하게 남성과의 섹스가 ‘일’인 여성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출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섹스를 하곤 하는 ‘이런 여자’에게 ‘아버지’는 경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여자’는 출산으로 이어지는 섹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쉽게 간주되기도 한다.

비르지니테팡트는 지형의 실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지배층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구획된 아프리카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에 ‘어머니-창녀’라는 이분법의 선이 그어져 있다고 이야기했다. 가부장제 정치학에 의하면 ‘어머니’와 ‘창녀’는 멀리 떨어진

기 때문에 섹스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실 남자들도 ‘어머니’와 ‘창녀’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실제 우리 동네에는 mother fucking, 혹은 친구 어머니와의 섹스를 동경하는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업소를 찾는 남성이 상당히 많다. 이들 남성들은 이곳에서 애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된 상대와 성적 모험을 하기 위해 업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판매 여성의 낙태는 보통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재생산권 자체를 부정당하는 식으로 여성들의 낙태와 재생산권 논의에서 소외된다. 또한 “니들에게 낙태권을 허하면 맘대로 몸 굴리고 다니게?”라는 댓글이나 부르는, 낙태와 재생산권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정치적 논의를 희석시키는 사례로 오인되기도 한다.

성판매 여성의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 섹스 노동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업주의 손에 이끌려 허름한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고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강제로 ‘일’을 지속하는 여성들도 많지만, 또 한편에선 많은 여성들이 노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결심 때문에 스스로 낙태를 선택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상황/결심 자체에 포착한 일수업자라든지, 악덕업주, 기동서방 등 폭력적인 권력이 영향을 미

성판매 여성의 낙태는 어진 다른 세계에 살고
보통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여자들이다.
재생산권 자체를 부정당하는 식으로 이에 대해 ‘많은 성
여성들의 낙태와 재생산권 논의에서 판매 여성들이 어머니
소외된다. 이다.’ 혹은 ‘어머니이

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독한 불경기 탓에 선불금이 없어지거나 선불금의 액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많은 성산업 종사 여성들이 일수를 쓰고 있다.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갚아나가야만 하는 일수 빚의 특성상, 매일의 일수 도장은 삶의 근면함을 증명하는 칭찬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높은 일수 이자를 받아먹는 일수쟁이들은 “나 돈 없어서 찢찢매고 있을 때 돈 빌려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나는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평가, 신용에 대한 프라이드는 여성들이 자아를 구성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내부적 결심은 그들이 노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당위를 만들어내고, 이들은 열 달 동안 돈을 벌지 않을 수 없기에 낙태를 선택한다.

실제 한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일수 빚을 갚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거의 일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피임약을 먹다가 그만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아내기도 했다. 너무 오래 생리를 하지 못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피가 터진 것이다. 처음엔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싶었지만 이 사건을 자신의 근면성, 책임감을 증명하는 징표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노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의 현실적 결단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외부적 상황-내부적 결심에 의해 낙태를 결심한 데에도, 그 이후에도, 문제는 빈곤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산부인과 병원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많은 동네 여성들이 이용하는 단골 병원은 접근하기 편리하나 시설과 평판이 좋지 않다. 인터넷으로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콘돔과 화장품, 옷 등을 구입하는, 더 이상 정보력에서 소외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병원의 시장 경쟁력 차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최근 동네 언니와 강남의 산부인과에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언니가 감동하는 부분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점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아이를 낳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왔다는 점이였다. 홈페이지에서 그 병원의 주요 고객인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확인했다면서 드러내는 기대는, 세련된 담담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졌다. 내가 그랬듯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잠시 주눅 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돌이 작은 우산 하나를 쓰고 강남의 병원에 갔던 기억을 ‘호강한’ 기억으로 재현해 내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주의 정치학은 가부장적 법에 대항해 ‘여기 낙태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있다!’ 는 것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들 간에 정치한 차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권력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채로운 여성들의 인생에는 임신, 출산, 낙태를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더 중요한 여러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낙태는 범죄행위이다’라는 명제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겠지만 ‘성판매 여성의 낙태도 범죄행위인가?’라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많을까? 이런 면에서 가부장제에서 제외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낙태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시도는 흥미롭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조각 이야기들이 모여 만든 찬란한 무지갯빛 연대일 것이다. ☪

여성주의 정치학은
여성들 간에 정치한 차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권력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채로운 여성들의 인생에는
임신, 출산, 낙태를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더 중요한 여러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권, 가부장제 국가와 싸워라

◎ 본 상담소 부소장 이윤상

수정란, 배아, 태아. 이들의 생명권. 이것은 낙태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와 늘 대치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온전함과 위대함. 세상의 어떤 권리가 감히 생명권과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낙태논쟁에서 생명권 옹호론자들은 항상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추상적 논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낙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각종 조사결과도 종종 발표된다.¹⁾ 낙태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는 낙태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주위 사람들 중에는 낙태를 했던 사람, 낙태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명권. 태아는 사람이니 낙태가 살인이라는 주장. 참 무겁다. 그런데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 태아가 갖는 지위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법체계에서 태아를 사람과 동등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그렇다면 낙태죄의 형량²⁾은 살인죄와 동등해야 할 것이다), ‘생명’ 이해를 둘러싼 모순은 술하게 많이 발견된다.

비근한 예로 강간 피해로 임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는 우리의 법³⁾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의 중절은 -심지어 생명옹호론자들 중 일부도- 너른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강간은 의도된 성관계와 달리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피해이니, 다시 말해서 임신한 사람이 의도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니 책임을 가지고 임신을 지속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핵심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면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살인을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지 않은가?) ‘의도’ 인가?

모든 성관계의 ‘의도’에는 임신의 ‘의도’도 포함되는 걸까? 물론 모든 성관계에는 임신의 ‘위험’이 따르는 한다. 임신을 굳이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완전한 피임방법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의 섹스에는 항상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형법은 낙태만을 단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간은 낙태미수죄까지 없어서 처벌해야 맞고(생명권의 위대함을 기억하라),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 또한 처벌해야

1) 200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여성 85.1%, 변호사 및 법대교수로 구성된 법조계 96.6%, 전국 여성단체로 구성된 여성계 96.7%, 종교계 57.5%가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 혹은 완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04,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고려대학교 · 보건복지부)

2) 형법 269조(낙태) 중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중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모자보건법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중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다.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임하지 않았다면 그 건 살인의 '의도'가 이미 내포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도된 성행위에는 반드시 도덕적 판단이 함께 한다. 결혼제도 밖의 섹스, 성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십대의 섹스 등은 늘 '부도덕'의 부담을 안고 있다. 엄격한 낙태금지에는 당연히 이성과의 섹스를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혼여성이, 십대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자연스럽지도, 지지받지도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별 받기 싫으면 섹스하지 말라는 우리사회의 준엄한 명령이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피임방법 중에 여전히 완전한 것은 없으며, 그나마 생활의 불편과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성공률도 높은 방법으로 꼽히는 콘돔사용법은 이미 수 백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은 '낙태-성행위 통제'와 가까운 그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다.

강간에 의한 임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 상담소의 내담자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⁴⁾를 통해 들은 것은 '판결문 들고와야 낙태시술을 하겠다'는 싸늘한 것이었다.⁵⁾ 이미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없지만, 그 대답이 '판결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이없는 노릇이다.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미 태아를 출산해야하는 시기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낙태는 생명권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권리(선택권, 재생산권 등)와 국가의 통제권 간의 갈등이다. 국가는 임신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특별히 강간피해로 인한 자식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식은 낳지 않아도 된다

고 승인하였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남용해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부추기는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국가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가 원하는 것은 인구가 너무 많을 때는 조용히 낙태를 허하고(30년 이상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운영되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분명하게 제시된 적이 있던가), 인구가 부족할 때는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되,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아이나 낳아서는 안 되니 가부장제 사회 질서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고, 국가의 복지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출산과 양육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꼭 챙긴다.

그러면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 개인이 마치 태아를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삶에 벌어지는 불편함을 견디기 싫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러는 양 낙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국가는 그 여론 뒤에 조용히 몸을 감춘다. 태아의 존재감을 몸으로 느끼는 것도 여성이고, 태아를 '사람'으로 키우는 엄청난 사회적 노동을 실천하는 것도 여전히 대부분 여성 (엄마가 혼자 키우지 못하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여성 베이비시터 등 여성의 노동력이 저임이거나 무임의 형태로 투입된다. 미혼모 시설 등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대부분 여성이다)이며, 임신 종결을 결정하는 것도 태어날 아이, 이미 태어나 있는 가족과 주변인, 여성이 감내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끝에 내리는 '책임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절대 부각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들고 오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하지 않을까. 판결문 기다리다가 출산하게 되면 10개월간의 임신노동을 국가비용으로 보상하고, 출산한 아이를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육체노동, 감정노동, 정신노동, 교육노동, 보건노동 등 돌봄노동 일체를 제공하라고. 결국 이 아이는 국가의 의도적 외면으로 태어났으니. ☹

4)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가 의료·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부, 경찰청, 지방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원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16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5) 2007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중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 6개월 된 청소년이 낙태를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았으나 재판에서 가해자임이 판명되거나 최소한 고소절차를 밟아야만 시술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결국 동네병원을 수소문해 어렵게 시술을 받았다(나눔터 58호,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 이미경 참조). 2008년도 7월의 상담사례 중에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5개월의 여성이 낙태시술이 필요하여 우리 상담소에서 동 원스톱지원센터에 문의했으나,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개인병원을 찾아가서 시술을 받아야 했다.

재생산의 권리와 의무, 남성은 어디에 있는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재생산의 권리와 의무, 남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 과정에서 남성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서 재생산 과정은 임신·출산 과정을 의미한다. ‘제대로’라는 표현의 의미는 임신·출산 과정에 여성과 함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제목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과 함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제목이자 질문에 대한 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답을 좀 우습게 표현했는데, 이유는 그렇다. 우스운 답처럼 우리 현실도 우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우스움이 단순히 웃기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데 해결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생기는 ‘허탈한’ 우스움이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는 ‘허탈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탈한 상황인지는 마지막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그때 그때 다른’ 남성의 상황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자.

먼저, 임신·출산 과정이 혼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대부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낙태로 끝을 맺는다. 이 경우 여성이 이른바 ‘동정녀’로서 혼자 어찌어찌하여 임신한 것처럼, 남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옛날 옛날에 동정녀로 아이를 낳은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 많은 ‘동정녀’는 ‘부도덕한 여자’로 손가락질받고 낙태의 아픔을 혼자 감수하고 있다. 어찌다 아이를 낳을 경우,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싱글맘’이라 표현하면서 ‘미혼모’보다 사회적 낙인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긴 하다. 영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서 ‘싱글맘’이라고 하면 왠지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 환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 블로그에서 예쁜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힘든 일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재생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뺏기고 왜 대부분 도망가고, 또한 도망가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왜 찾아보기 힘든가? 그리고 낙태는 왜 계속 방치되고 있는가?

도망가는 남성은 이런 경우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부장으로서 이해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 입장에서 볼 때, 혼외 관계 출산은 기존 가부장제 내지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출산이 자신의 가계를 계승하는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 여성이 아이를 낳든지 낙태를 하든지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가계 계승과 관련 없는 권리와 의무는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뿐이다. 주변에서 가끔 혼전 임신으로 인하여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혼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신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기치 않았던 임신·출산을 결국 가계 계승 작업과 연결시키는 ‘계획 변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계 계승과 관련 없는 재생산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남성들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한 남성의 행태가 가부장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독신모 가족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와주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낙태가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가족 형태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종교 조직이 낙태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임신·출산 과정이 성별노동분리가 극복된 파트너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남성은 재생산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성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남성은 임신·출산 과정은 물론이고 육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부모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셋째, 임신·출산 과정이 혼인 관계에서 가계 계승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남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여성의 낙태 혹은 낙태 시도는 상상할 수 없고 용서하기도 힘든 일이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이 시작되면 결혼 전 평등한 관계를 침이 튀도록 이야기했던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신·출산 이전에 여성의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남성은 이제 여성에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 테니’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한다. 실업·질병·사고 등 각종 다양한 사회적 위험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지는 별로 안중에도 없다. 남자로서 임신·출산을 통하여 가계를 계승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여자를 ‘먹여 살릴’ 의무감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이다.

넷째, 혼인 관계 내 임신·출산 과정을 가계 계승을 위한 것으로 보면서, 여성이 임신·출산 및 육아와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남성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낙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자로서 임신·출산을 통한 가계 계승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만, 그 외 재생산 과정에서 남자의 의무는 전혀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혹은, 출산을 통한 가계 계승을 의무로 알고 그 의무 실현 대상으로서 여자를 도구화하는 경우라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섯째, 임신·출산 과정이 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느 정도 가계 계승 욕구가 충족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럴 때 남성의 입장에서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관심사가 아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오로지 여성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기혼여성에게 낙태가 마치 사후피임 수단처럼 인식되는 상황도 결국 남성의 이러한 가부장적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혼전 관계에서처럼 육체적·물리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이 경우에도 여성은 ‘혼자’ 임신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권리와 의무가 나타나는 모습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유형 두 가지(첫 번째와 다섯 번째), 동등한 파트너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유형(두 번째), 가부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유형(세 번째), 가부장으로서 권리만 행사하는 유형(네 번째)이다. 두 번째 유형이 드문 우리 사회 현실이 결국 저출산 현상

가계 계승과 관련 없는 재생산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남성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한 남성의 행태가

가부장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나 높은 낙태율로 이어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서 낙태 방지가 요즘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을 소재로 하여 낙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 전략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수단화할 뿐 남성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남성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변화 전략이 선행되어야 낙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논의에서 남성은 빠져 있는 상황이 많이 허탈하다. ☹

학교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오매 / 소장 이미경 / 부소장 이윤상

1. 들어가며

지난 4월 대구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십대 사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순진해야 할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식의 호들갑을 보였고, 학교 당국과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로 우리 사회는 요란스럽게 요동쳤다. 그러나 차분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한 노력이 무엇인지, 정말 이 호들갑 규모에 걸맞는 노력을 하거나 한 것인지 스스로 부끄럽다.

십대는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와 가해행위는 성인의 것과는 다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십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과 입장이 여전히 공감대를 찾기 못하고 있는 시점에 ‘대책’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학교성폭력의 발생과 해결상의 문제 : 2004년, 2008년 학교성폭력 사건에서 보다

밀양지역에서 2004년에 있었던 집단성폭력사건과 올해 4월에 알려진 대구지역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은 크게 보도가 되어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노력을 이끌어내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학교성폭력의 발생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1) 가해자의 저연령화

2004년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은 세상을 경악하게 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이미 관찰, 연구되고 있던 주제이다. 이들 청소년, 어린이 가해자의 행동은 성인의 유인, 위협, 폭행 및 지속적 괴롭힘을 모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남성이 다수의 여성에게 가하는 사회문화적인 젠더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해, 사건이 경미하다거나 ‘어린 나이에 당연히 드는 성적 호기심’라고 무책임하게 낙관하려는 시각이 존재하며, 이러한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여성-피해자에 대한 비난, 남성-(청소년)-가해자에 대한 옹호와 관용이라는 공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 학교폭력과 연계

학교성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와 해당 교육청은 이것을 학교폭력의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곤 한다. 그러나 남자청소년의 집단문화와 그들의 성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우리사회에서 10대에게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그대로 적용, 권장하는 문화는 학교에서도 이어지며, 폭력적인 성문화를 학습하게 되는 장 역시 대부분 학교이다. 학교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1:1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가해지며 학생들 간의 위계 및 권력 질서, 때로는 상급학교와도 연결된 학교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원치 않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고학년과 저학년의 위계 안에서 폭력을 학습시키며, 이것이 결국 함께 즐기는 놀이가 되게끔 하는 폭력의 문화가 그 속에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성폭력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학교는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3) 사법처리 과정

학교성폭력 사건 중 사법처리에 맡겨지는 경우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밀양집단성폭력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유발론에 기반한 질문이 반복되었고,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 변호사에 의한, 그리고 재판부의 시각과 판결에 의한 2차 가해는 계속되었다. 학교/지역 내 문제해결과 사법처리가 철저히 분리되고 이원화되는 것도 문제이다. 학교성폭력과 같이 특정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그 집단에서 함께 성찰하고 뜯어보아야 할 문화적인 조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전 조직적인 성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순간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가 책임을 놓게 되는 모습이 흔한데, 청소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평범한 일상문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향을 생각해 볼 때, 수사기관과 학교, 지역공동체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혹은 지역공동체

성폭력과 같이 생존의 위협과 위험이 되는 사회적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공동체의 시민은 정부와 책임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동료시민의 입장에서 감정 이입, 배려, 돌봄을 행할 존중의 의무도 있다.¹⁾ 특정 지역 이름을 거론한 사건을 통해서도, 보편적인 감수성으로 사건을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많은 여성, 학부모, 시민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가지는 감수성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된다. 반면, 학교는 지역이나 시민성과도 동떨어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번 대구 초등학교 사건에서 보듯, 학생들을 상담하고 직접 관찰하는 담임교사들의 문제제기는 학교장을 거치고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을 거치면서 점차 축소·은폐되었다. 학생들을 책임 지지 못한 일선 교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과는 동떨어져 자기 본위로 몸을 사리는 교육관료들이 큰 문제이다. 지역 내외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도움을 무시하는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펼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인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1) 조형(2007), "여성주의 시민화시대의 시티즌십과 시민사회",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5) 피해자의 삶

한국사회에서 10대 여성이 성적존재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10대 남성에 대한 성의 권장과 교육, 관용에 비해 매우 차별적이다. 어린이와는 달리 '행위성'과 '판단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10대를 규정할 때, 10대 남성의 집단적인 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성과 판단력을 기준으로 더욱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10대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근거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틀어주는 시선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고통은 성폭력 경험과 문제제기에 대한 사람들과 사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성폭력 피해자는, 폭력은 부당하였으며 권리는 생 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인 주체이자 존엄하고 자유로운 인간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교육공간과 우리 사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3. 학교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정부 정책의 내용과 과제

2004년 밀양집단성폭력사건 이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성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피해학생을 지원하겠다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또한 17대 국회에서는 유래 없이 13개가 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성폭력 특별법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신고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했으며,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강화했다. 여기서는 학교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법·정책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자.

1)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추진 계획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학교성폭력 사건의 문제점을 1)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영상물에 노출된 학생들이 충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모방 행위 발생, 2) 음란·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단속 미흡, 3) 단위 학교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4) 성폭력 등 학생사안 발생 시 적기대처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²⁾ 이를 기반으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교육,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가·피해학생 선도·치유, 인프라구축 등의 정책추진계획과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학교에서의 실행계획을 밝히고 있다.

2) 범정부의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특성과 우려점, 방향

(1) 학교 성폭력 예방 철학의 모호함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에서 어린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만 소극적 대처가 된 것 같다'는 감싸기식 발언을 늘어놓는다. 또한 성폭력의 용어조차 매우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논

2) 교육과학기술부(2008),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등 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 고위당정협의회(2차) 회의자료, 3p.

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운 보호' 단계에만 머물고 있어 문제적이다.

(2) 학교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의 부실한 운영

우리 학교현장의 성교육은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일회성 대규모 수업을 하는 등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국 학교의 66%에만 보급되고 있는 양호교사의 비율을 높여가야 하며, 담당 교사의 연수과정 내용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 교사들이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키워 일상적인 학교생활 곳곳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법·정책 실천 의지의 미흡

우리사회에는 이미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운용은 매우 저조하다. 예를 들어 신고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 아직 드러나지도 못하고 있고,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 측에 의해 축소·은폐되기 일쑤이다. 이번 대구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부장관이 한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4) 부처간 역할과 업무분장의 중첩 및 미비

충격적인 학교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대구사건 이후 정부가 지시한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만 해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추천해서 가·피해학생은 물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학부모측이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해당학교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 각 지역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제대로 시행할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에 관한 세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5) 피해학생 지원 미비

대부분의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은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며 전학과정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는 성폭력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처리하는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제 학교폭력의 범주에 성폭력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의료지원비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학생들은 건강한 학교생활로 돌아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6) 예산의 비효율적 분배

학교성폭력 대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향후 3년간의 예산을 보면 180억 규모의 예산이 돌봄 학생통합지원센터에 쓰이게 되어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 240여 개소의 청소년지원센터, 또한 전국 200여개소의 성폭력상담소 등과 무관하게 새로운 센터의 설

립을 그 골자로 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운영계획, 내용 등이 좀 더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3) 학교 성폭력 관련 법제화의 문제점

국회의 각 정당들은 언론이 주시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정당별로 긴급조사단을 꾸려 현장을 방문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행동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의 의지나 추진체계가 매우 미비하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성폭력 포함

2003년 학교폭력법이 제정될 때부터 성폭력의 포함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2008년 3월에 개정되면서 성폭력이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마련될 학교폭력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이 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위원 중 민간위원을 전체 50%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교육의 철학이 담긴 지침을 만들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 교육도 의무조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권장사항으로라도 제시되어야 하며, 예방교육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한 예산 재배치가 필요하다. 조정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제도 마련 역시 필수적이며, 조정자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이 전체 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담당 조정자의 선정에 세심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지난 17대 국회(2004~2008)에서는 상당수의 성폭력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피해자 보호주의, 특히 아동성폭력피해자 구제책이 중심이다. 셋째, 전자발찌 등 국가의 감시 권력을 강화했다. 넷째, 산발적인 법집행 구조를(여성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등)양산했다. 다섯째, 친고죄폐지나 공소시효 정지 등과 같은 현안에는 무관심했다. 법정형 상향조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과, 따라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험난한 길을 전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법정형 상향조정보다는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라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7대 국회에서 2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12~14세 미만 가해 청소년들도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상실신고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다. 또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신상 세부정보공개의 등록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열람권자도 기존의 교육기관의 장에서 청소년의 보호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시설, 단체 취업제한 기간을 5년

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처럼 새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성보호법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독립적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 소관으로 그 관할처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힘있게 진행해오던 청소년 성폭력 관련 업무를 더 발전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도 어렵게 한다.

4. 나가며 : 요란한 언론보도와 정부대책에서 빠진 것

호들갑 보도와 정부대책이나 처리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우선 정부정책에는 새로운 것이 없으며 다양한 대책들 사이를 일관되게 묶어주는 '지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면 '인권존중 및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은 십대의 성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무성적인 존재로 전제한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³⁾ 한마디로 철학이 부재한 정책, 그래서 목표가 불분명한 정책들 뿐이다. 철학이 부재하니 신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실행되는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십대의 성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그 현상 속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해서 직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십대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교육, 더욱 넓게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다. 십대는 보호받을 권리와 성적 주체가 되기 위한 역량을 배우고 익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십대의 경험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고, 십대의 욕망과 갈등이 그 핵심에 놓이지 않는 한, 그 어떤 교육도 문제를 규명하거나 예방, 혹은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호들갑과 야단치기 보도, 진부한 정부대책 사이에서의 방황을 접고 과감한 실천을 시작할 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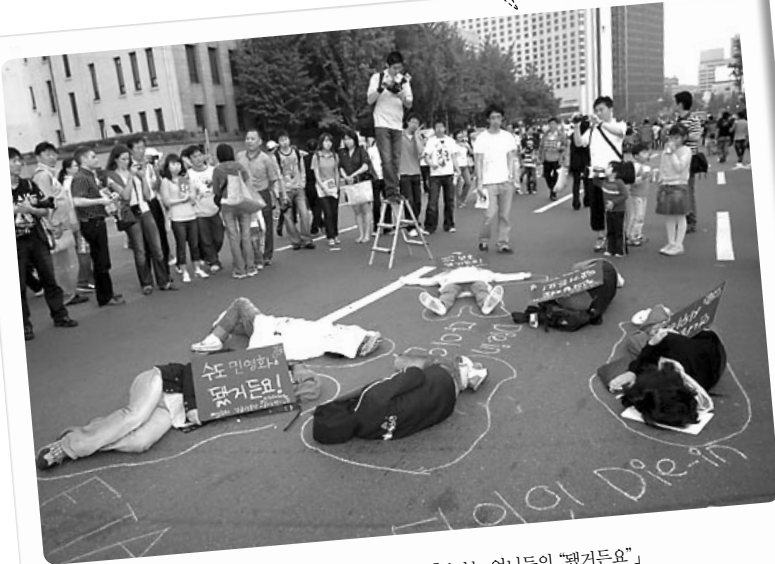
이 글은 2008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반복되는 청소년성폭력사건을 통해 본,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발제문 전문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introduction/5/169>

3) 본 문단에서 예를 든 정책은 학교폭력 전문 연구단 회의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8.6.4)에서 인용하였음.

쟁점과 입장

나눔터
info. in common여성보호,
됐거든요!

◎ 상담소 회원, 블로그하는 여성주의자 여름_녀름
<http://blog.jinbo.net/mbc112>



▲ 2008년 6월 7일에 있었던 액션 「불타는 언니들의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그녀들과 팔을 걸고 전경 방패 앞에 앉아 있었다.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그 자리를 메우고서 다녀왔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막차 시간을 넘겼다. 내 옆에 그녀는 집에 전화를 했다. 오늘은 못 들어가겠노라고. 12시쯤까지 있던 경찰은 어느새 빠졌다. 우리는 도로에 앉아 자유발언을 하고, 노래를 배우고, 구호를 외치고, 자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5월 24일 촛불이 처음으로 거리를 점거하고 그 거리에서 밤을 지낸 날이다.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어느새 막차를 보내고 첫차를 기다렸다. 어느샌가 빠졌던 경찰이 4시쯤 다시 왔다. 방패를 앞세우고... 우리는 다시 팔을 걸고 앉았다. 처음엔 촛불을 사이에 두고 전경과 시위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팔을 걸고 전경 방패 앞에 앉아있었다. 소리치고 뜯겨나가고 고립되고 밀고 주변에서는 폭력경찰 물리가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 와중에 내가 제일 선명하게 들은 소리는 “여자들은 뒤로 빠지세요”였다.

떠움...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하나고 대안이고 우리가 승리했고.. 등등 언제나 ‘우리’ 라고 묶이며 서로 동질감을 형성하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분리된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어떤 사람들이)생각하는 순간에 먼저 청소년과 여성이 배제된다. 나는 전국민적인 참여자체가 자랑인 집회에서 어떤 소외와 배제를 접했고 그날 이후에는 더 두려운 단어와 만났다.

5월 24일 첫번째 밤샘집회 이후부터는 촛불집회는 계속해서 심야의 거리를 무대로 유쾌한 판을 이어가는 듯했다. 나와 몇몇 친구들은 간헐적이었더라도 매번 그 무리 안에 있었다. 그리고 각자 유쾌했던 이야기, 불쾌했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여자들은 뒤로”였다. 어투에 맥락이 있는데, 절대 “여자들 나가, 꺼져”는 아니다, 매우 정중하면서 배려하는 말투, “뒤에 가서 계세요. 이 험난한 싸움판으로 부터 당신들을 지켜드릴게요.” 바로 ‘보호’다.


촛불집회에서 어떤 이들에 의한, 그리고 예비역들에 의해 거의 원칙화까지 되어버린 여성, 청소년 보호에 대해 여성주의 블로거들이 글을 쓰기도 했었다. 그 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무리가 당연히 존재했지만, ‘Daum 아고라’ 나 ‘이글루스’ 등에 글들이 링크되면서는 몇 백개의 악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논조는 거의 ‘나서서 지켜주고 있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는 식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는 ‘늘 있던’, ‘늘 듣던’,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비하를 ‘또’ 들어야만 했다.

상황을 쪽 꺾으면서 뭔가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에 블로그에 ‘언니들아 액션하자’ 라는 글을 썼다. 촛불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길을 잃고 해매는 무능한 권력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구할지는 몰라도 ‘함께 집회에 참여해서 케발랄하게 투쟁하고 싶은’ 페미니스트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하게 된 액션이 ‘불타는 언니들’의 “뺑거든요” 액션이었다. 일단 피켓에 ‘청소년·여성보호 뺑거든요’, ‘전의경 제도 뺑거든요’, ‘수도민영화 뺑거든요’ 같은 메시지를 썼다. 메시지에서 알 수 있지만 우리도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넘어야할 ‘여성보호’라는 산이 있었다.

그리고 드러 누웠다. 아스팔트 바닥 위에.. 비폭력 평화행동의 일종인 ‘다이인(Die-in)’을 했다. 다이인을 검색해보면 이라크 전쟁같은 대량학살에 저항하여 집단으로 죽은 척을 하며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꽃을 올리며 추모하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고 분필로 낙서하며 메시지를 적기도 한다.

‘뺑거든요’ 라는 메시지와도 다이인이 잘 맞았다. 여성들이 거리에 눕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낳는다. 실제로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고 호통치고 어떤 사람은 같이 흐느끼기도 한다. ‘어쩌자고 이렇게 누워있냐’, ‘이러면 안된다’ 등 다양하다. 피켓들고 누워서 지나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성이라는 몸을 가져서 보호대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성의 몸으로 누워있으니 운동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씩씩하기도 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벡타이부대를 이야기한다. 87년의 사진을 보면 벡타이부대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면서는 어떤 주체를 떠올리게 될까. 촛불소녀, 유모차 부대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예비역 구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기억해주는 것 말고 내가 기억해야할 것은 아마도 지켜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즐거웠던 길바닥에 드러누운 불타는 언니들. 

1) ‘불타는 언니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알음알음 만나 일시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액션에 대한 구상은 모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쟁점과 입장

나눔터
info. in common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0차 세계여성학대회에 다녀와서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조직위원장 장필화

세계여성학대회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9차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이 2005년인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만에 열리는 제 10차 대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여명이 참여했고 저는 세계여성조직 (WOWS: Worldwide Organization of Women's Studies) 운영위원들, 아시아여성학회 회원들과 함께 바쁜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9차대회 조직위원들로서 이번 대회는 보통 다른 국제학회에 참여할 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 서울 대회 폐회식에서 스페인 대표가 다음 대회는 마드리드에서 주최한다는 선언을 한 이후 우리들의 조언을 많이 구해왔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평등은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유토피아라는 말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라는 뜻을 갖는 말이기 때문에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을 부정

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최 대학인 컴플루텐스대학은 학생 수가 거의 10만명에 가까운,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스페인은 1970년대만해도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농업국가였는데 덕분에 공장이 거의 없는 역사, 문화의 보고로서 세계 최대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는 역사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해서 사회발전 지표를 향상시키고 여성친화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현재 내각의 14명의 장관 중 8명이 여성이고 이들이 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지역에서는 많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스페인과 스페인 언어권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대거 참가해서 3,500명이 2,700개의 논문과 포스터 발표를 신청한 거대 규모 대회가 되었습니다. 기초발제자 중 한명인 캄보디아 출신 소말리 맘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졌고 인권 신장 관련

수상 경력이 많은 분입니다. 인신매매, 성노예 피해자 구출을 위해 1997년 설립한 AFESIP (Agriculture pour les Femmes en Situation Précaire or Acting for Women in Distressing Situations)의 활동 보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이 12살부터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갖는 힘과 용기가 강하게 전달되었고 성적 착취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든 청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는 발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초발제자인 이집트의 대표 지성인, 나왈 엘 사다위는 “창의성, 여성, 비판세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큰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다위는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시장이라는 담론으로 은폐되는 현대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이 비판적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우리가 불러내야 할 용기,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짓들, 뿌리쳐야 할 유혹들을 명료하고 명쾌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전달했습니다.

한국 여성학자들은 아시아여성학회가 주최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아시아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유럽인들과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 아시아여성학의 관점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를 가졌고 수많은 관객들이 이 패널을 경청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상화 교수의 “아시아적이라는 의미와 ‘아시아 여성학’의 개념”발제에 이어 이주노동, 국제 결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지요. 이 패널 이외에도 서울시 여성재단은 조영미 박사등이 다른 여러 도시에서 참여한 학자/정책입안자들과 함께 도시와 젠더,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구상들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세션을 마련했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학자들도 각기 여러 다양한 패널에서 발표하여 한국여성학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마드리드에서 세계 각국의 여성학자들과.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장필화 교수.

저는 이 대회에서 세미플레나리 세션 발제자로 초청받아 여성주의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gift economy와 생태여성주의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 지면을 이용하여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의견 교환을 위한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세계화를 통해 가속화되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전쟁,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현상이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발제에서 저는 우선 기후온난화를 비롯해서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다양한 재해가 사실상 여성들에게 더 혹독한 시련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뿌리에는 인간 가치보다는 도구적 합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가부장제적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대치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네비브 본 (Genevieve Vaughn)이 제시하는 gift giving 패러다임에 주목했습니다. gift economy란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 관계만이 인정받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 가리워져 비가시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 존속을 위해 없으면 안되는 활동과 관계의 패러다임

쟁점과 입장

나눔터
info. in common


을 총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들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보살핌 노동과 관계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네비브 본은 특히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본래적으로 교환 경제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특히 화폐를 매개로 하는 시장 사회의 교환 경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모두가 “손해 안보기”와 “자기 이익 최대화하기”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고 그것은 곧 거짓 (선전, 과대포장)을 부르고 신뢰를 깨뜨리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기와 물과 같은 것은 가치가 없는 듯 보여지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희소가치”(예를 들어 수량을 한정시키는 명품) 상품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략입니다. 제네비브 본은 “대가없이 주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눈을 떠서 다시 보고 회복함으로써 그것이 지배적 가치가 되는 사회로 변혁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노자의 도덕경의 여성, 자연은 유와 연결하기도 하고, 한반도 가부장제의 뿌리깊은 모성과 그 딜레마, 그리고 지난 5,6월 촛불 집회가 보여주는 함의를 끌어내기도 하는, 약간 복잡한 내용을 발제했지요. 촛불 집회의 예가 들어간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여성중심적이었다는 점 (적어도 초기에는) 즉, 아이와 가족들에게 또 스스로에게도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충만한 여성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생활정치 영역에서 의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많은 역사적 시위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사회, 혹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지와 희망 이외에는 그 어느 다른 보상을 바라

는 바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쏟아 붓는 gift giving의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과 호응이 있었고 또한 이어서 교환, 거래, 호혜 등과 관련하여 이 패러다임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별도의 패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회의가 끝난 후 이태리 로마 근교인 론실리오네에서 제네비브 본과 소규모 학회모임이 개최되어 같은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회에 참여하여 모계제 사회의 여러 신화, 습속, 설화와 서구 문화, 시장사회와 근대성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지 않은 토착문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통 한 사회에서는 소통되지 못한 새로운 생각과 이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학술대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회 폐회식에서 스페인 컴플르텐즈 대학 총장님이 여성학 제도화를 약속하는 것을 보고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년간 Wows 한국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해 온 캐나다 팀(칼튼 대학, 오타와 대학 팀)이 11차 여성학대회의 주최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보고해야 할 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 대회가 좋았다는 얘기를 특별한 에피소드와 정겨운 추억 몇 가지를 곁들여 거듭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울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정도였으니 이는 서울 대회를 준비한 분들 모두가 보여준 정성과 우정에 대한 응답입니다.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조직위원 여러분과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성적 스포츠 문화와 성폭력

그들만의 세계에 은폐된 “스포츠 성폭력”

◎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명선

프롤로그 ; 오래전의 기억, 그리고 현재에 만난 과거의 기억들

벌써 30년쯤 전이다. 내 고등학생 시절에 “그 아이들”은 우리와 달랐다. 그렇게 느꼈다. 교실 제일 뒷자리는 학교 운동부였던 그 아이들의 지정석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자리는 대부분 비어있었다. 가끔 수업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은 그냥 책상위에 머리를 얹었던 채 자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천천히 일어나거나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었다. 그러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보는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존재로 기억된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운동장 트랙을 수도 없이 왕복하는 그 아이들, 체육관이 터져나가라 지르는 고함과 기합 소리, 남자 체육선생님들이 지독한 욕설과 함께 테니스

스 라켓으로 그 “여자” 아이들의 배를 쿡쿡 내 지르던 장면들... 내게 그 아이들은 나와 학교라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프로젝트로 학생선수의 인권 실태에 참여하면서¹⁾ 요즘 난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있다. 30년이 흘렀지만,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그 아이들은 여전히 그 공간 안에 그렇게 그대로 갇혀있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30년 전에 내가 앉았던 그 낡은 책상과 결상, 칠판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교실에 다시 온 느낌이라고 할까...

“스포츠 성폭력”, 스포츠계의 익숙한 관행?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소위 “스포츠 성폭력”과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성폭력”이란 용어상으로 다소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나 흔히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 문화적, 관계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일반을 통용한다. 스포츠계의 폭력이나 잘못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스포츠계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오랜 관행이자 익숙한 폭력이라고 고백한다.²⁾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스

포츠 성폭력과 관련해 최근 수행된 황정임 외(2007)의 연구를 보면 현재 직장운동부에서 여성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16.1%로 보고하고 있고, 학생운동부 시절의 성폭력 경험비율은 37.5%로 나타난다.³⁾ 또한 초등학교 남녀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광민 외(2006)의 조사는 14.9%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⁴⁾ 다른 성폭력 형태가 그렇듯이 실제 성폭력 발생율이 보고 수치를 상회할 것을 감안할 때,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태 역시 많은 경우 대부분 비가시화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운동선수 인권실태조사”이며 2008년 5월-10월 중에 진행중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인용하는 사례들은 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접하게 된 사실이나 인터뷰 사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정희준, “여성을 위협하는 체육계의 구조적 폭력과 그 익숙한 관행, 그리고 대안”

3) 황정임, 선보영, 허현미(2007),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 문화관광부 연구영역 보고서

4) 조광민 외(2006), “학생운동선수 인권실태조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보이지 않는 문제 : 장난이거나 친밀함이거나

무엇보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요인은 성폭력에 대한 무지와 인식부족이다. 특히 폐쇄적인 관계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오직 운동을 하는 선후배나 동료, 지도자만이 주요한 대인관계인 운동선수 십대들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이해나 인지는 일반 십대보다도 부족하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과정에서 만난 운동선수들에게 성폭력 경험을 묻는 경우 대부분 “그런 건 없다”는 게 일차적 반응이다. 그러나 좀 더 이야기가 깊어지면 “성폭력은 없다. 난 경험해 보지 않았다. 물론 선배나 코치들이 연습할 때 몸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쓸쩍 터치하거나 하는 일은 흔하다”라고 대답하거나 “선배가 후배의 성기를 손으로 막 잡아 뜯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한일은 있지 만... 성폭력은 없다”라고 말한다. 성폭력을 강간과

같은 극단적 행위만으로 생각하거나 “그 정도의 일은 성폭력이기 보다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순이다.

더구나 거의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 속에서 감독이나 코치와 운동선수 혹은 선후배나 동료 간의 관계는 가족관계와 같은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요구할 뿐 아니라, 운동 자체가 몸과 몸을 부딪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이 단순히 “자세의 교정”이나 훈련의 일환인지 혹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인지 경계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감독이 옆에 앉으라고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해도 “감독이 이빠라 이빠라 하는건데”라고 생각하고 말거나 선수에게 성폭행을 가한 감독이 “팔 같아서...”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한다.

드러낼 수 없는 성폭력 : 불평등한 위계와 성별 구조

실제로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경우에도 절대적 위계관계와 권력관계에 기반한 감독과 선수,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저항하거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은행 성폭력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감독은 선수들이 알몸으로 있는 방에도 불쑥 들어가고, 선수들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면담을 한다면서 감독의 방으로 개인적으로 불러들이지만, 선수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동료들에게 “들어가서 1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방문을 두드려 달라”는 눈물겨운 저항을 모색할 뿐이다. 무엇보다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가 학교진학이나 취업 여부, 그리고 직업선수로 취업 이후에는 선수선발권이나 연봉 등을 결정하는 주요권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운동을 그만 두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 혹은 직장을 잃는 등 그야말로 미래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스포츠계의 불평등한 성별권력이 여성 선수들의 삶을 성폭력에 노출시키고 또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결과를 은폐시키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특히 “지도자/남성 대 선수/여성”으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구조는 단순히 위계나 권력뿐 아니라 성별 구조가 결합되어 성폭력을 발생, 유지시키는 전형적 구조이기도 하다. 즉 훈련과 일상에서 절대적 권한과 권력을 갖는 지도자와 그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운동선수의 관계는 그 자체가 위계적이다. 여기에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성별권력이 추가되는 관계에서 성폭력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피해자의 저항은 더욱 무기력해지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남성적, 위계적, 폐쇄적 문화

스포츠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운동선수들이 활약하고 있고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위계와 서열, 육체적 힘(때로는 폭력), 집단적 연대나 폐쇄적 문화 등을 속성으로 하는 “남성문화”의 지배를 받는 가장 대표적 영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소위 “국가주도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기본으로 발전해온 한국 체육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 낸 계 사실이지만, 이러한 압축적 성장은 한국 체육계 특유의 남성적이고 경쟁적인 훈련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즉 가혹하리 만치 엄격하게 통제되는 훈련과정, 지도자와 선수 간 혹은 선배와 후배간의 절대적 위계에 기반한 지배와 복종, 훈련에 수반되는 체벌과 폭력 등은 최고의 기량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할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더

구나 이러한 훈련 문화는 외부 집단이나 관계와 분리된 채, “그들만의 공간”속에서 “그들만의 문화”로 형성되는 폐쇄적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남성적, 위계적, 폐쇄적 훈련 문화는 남성선수보다 여성선수들에게 더 어려운 정체성 갈등과 적응문제를 야기한다.⁵⁾ 뿐만 아니라 위계적, 폐쇄적인 집단 문화는 성폭력의 발생이나 은폐를 구조화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가령 체육계에 관행화된 기숙사나 합숙훈련과 같은 집단문화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폭력을 더 손쉽게 발생시키거나 은폐하는 구조로 작동한다.⁶⁾ 더구나 집단 내 연대나 결속감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노출시키고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성폭력과 폭력, 연속선위에 있는 인권침해

마지막으로, 스포츠 성폭력의 중요한 특징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스포츠계 전반의 폭력 문화 혹은 폭력 허용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스포츠계에서 체벌이나 기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만연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학적, 체계적 훈련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실제 운동선수들을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즉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운동선수의 “몸”을 훈육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선수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즉 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을 손쉽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강압과 폭력을 이용하고 이를 “어쩔 수 없는” 혹은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방식으로 지속한다. 이처럼 폭력을 통한 훈육과 통제를 허용하는 문화, 폭력에 순응

하도록 길들여진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성폭력은 더욱 쉽게 허용되거나 발생된다. 가령 폭력의 극단적 형태로서 성폭력은 지도자가 선수를 통제하거나 선배가 후배를 길들이는 한 방식으로, 심지어 훈련의 한 형태로 오용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혼재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가령 후배가 선배의 빨래나 청소를 제대로 안한다고 구타하는 과정에서 후배의 개인적 행실을 문제 삼아 “걸레 같은 년”이라는 성적인 욕설을 하는 사례, 혹은 단체기합의 일환으로 옷을 발가벗겨 세워놓는 일 등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결국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 속에서 성폭력 또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나 인권침해의 양태로 나타난다.

5) 서구의 연구들은 여성운동선수들이 남성적인 스포츠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간에 갈등을 느낄 뿐 아니라, 남성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남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보고한다.

6) 조성민 외(2006)의 연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생상황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쟁점과 입장

나눔터
info. in common

대안은 있는가?

스포츠 성폭력은 “스포츠계”라는 일정한 폐쇄성을 갖고 있는 특정한 공간적 문화적 관계적 영역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거나 쉽게 은폐된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존재하는가? 물론 하나의, 그리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정책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제언이 가능하다.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일상구조 즉 합숙소나 합숙훈련체제를 개선하고, 피해자 긴급 지원체제와 상담체제를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 지도자 양성 및 배치를 위한 할당제를 도입하고,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등 등. 그러나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생명력이 없는 정책이나 대안은 그저 제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정책제언은 말 그대로 제언에 머물 수 있다. 정책이 구조의 변화라면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진정성, 스포츠계 관련인들의 변화의지와 지속적 노력, 그리고 선수 자신들의 의식화는 그 구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실질적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30년 전의 교실에 다시 온 것 같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10대 운동선수들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생명력이 넘쳤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가한 감독과 코치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불신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불편해보였지만, 대안을 찾아보려

는 진지함 또한 같이 갖고 있었다. 스포츠계의 선배로서 교육자로서 참가한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은 변화를 위한 열정으로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를 온몸으로 몰아내고 있었다. 하나의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서, 비록 여전히 여러 가지 미비함과 아쉬움은 있지만, 이들의 얼굴에서 이들의 몸짓에서 또 다른 시작을 본다. 변화의 씨를 심는. ☺

8년전 피해 증명을 위해

산부인과 진단 을 받아오라구요?

◎ 본 상담소 소장 이미경

“8년전, 6살, 7살 두 자매가 큰방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두 어린이는 이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난 어느날, 성폭력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던 딸이
 무심코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이라며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이 좌절되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즉시 항소를 했고
 8년전 강간사실을 입증하라며 피해생존자들의 산부인과 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지원사례(2005~현재)

강간 피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 부위의 치료와 성병 및 임신 등의 예방조치는 매우 필요하다. 또한 산부인과적 처치는 정액채취나 상대방의 치모 등의 법적 증거확보를 위한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안정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하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고소당시 7년의 공소시효(현재는 10년으로 연장됨)도 넘긴 사건으로 일반적인 산부인과 진료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사항을 확보하기란 거의 희박하다. 더욱이 어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처녀막 유무로 강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문헌연구들이 나오고있다. 특

히 신체적 손상의 정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관련 연구²⁾를 보면, “조직 손상은 -아주 심한 경우만 제외한다면- 빠르게 치유되고 종종 완전히 치유되기 도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기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은 종종 애무(fondling)나 여성 성기 구강 애무(cunnilingus), 남성 성기 구강 애무(fellatio)와 같은 것만 행하는데 이들은 모두 신체 검사에서 아무런 특이 소견도 남기지 않는다. 사실, 아동 성추행자는 종종 외음부(대음순과 소음순) 틈에만 삽입을 하는데 이것은 거의 외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강간은 외음부 사이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장과 입장 - 8년전 피해 증명을 위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오라구요?

쟁점과 입장

info. in common

(이 역시) 아무런 조직 손상이나 사정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단지,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피해 후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갔느냐가 증거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다. 앞에 인용한 논문에서는 “우선, 성기 외상의 증거와 같은 것들은 성기 삽입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느냐 이후에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 더 많이 발견된다. 특히 피해 아동이 이미 피해 사건 이후 외음부를 씻거나 소변/대변을 봤거나, 성폭행을 당한지 72시간 이상 지났다면, 정액이나 사정의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정자를 찾아내는 것도 얼마나 숙련된 검시자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산부인과 진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건강한 삶을 찾아가고자 분투하는 이들을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진료대에 서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벌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성폭력 2차피해이다. (더우기 이들은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으로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기이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는 “재판에 진다고 하더라도 내 딸들을 결코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딸들이 이로 인해 혹여 더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상담소에서 지원했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도 의붓아버지가 2년동안 딸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추행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생존자의 산부인과 진료결과는 “특이소견 없음”이었다. 자칫 강간이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뻔했던 이 사건은 다행히 피해자의 진술녹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 참조, 사건번호: 2007고합74).

여기에서 강간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녀막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처녀막의 유무가 곧 여성의 순결여부의 잣대로 작용하곤 한다. 나아가 처녀막이 튼다면 터지는 창호지쯤으로 생각한다.³⁾ 하지만 처녀막은 창호지처럼 얇고 투명한 막이 아니라, 질 입구에 있는 근육조직이다.⁴⁾ 따라서, 순결이데올로기의 원천인 ‘처녀막’이라는 용어대신 ‘질주름’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질주름의 모양이나 크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신축성도 개인차가 심하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강간은 처녀막 파열을 동반하는 것이고, 이는 곧 순결의 상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요구하는 산부인과적 진단서, 특히 질주름(처녀막) 파열 유무에 무게를 둔 진단서는 얼마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오히려 강간피해 후 산부인과적인 “특이소견이 없음”으로 진단받은 피해생존자들은 강간피해를 입증할 수 없는 이 사실 자체를 오히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재생가능한지를 자랑스럽게 느껴야하는 상황인 것은 아닐까? 문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도 활발하지 않고 전문가로 분류되는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활발한 피해생존자의 경험 말하기(speak out)와, 상담 전문가의 의견개진, 산부인과적 연구들이 간학문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생존자의 산부인과적 상태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해석,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1) 임용택(2004),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산부인과 의료적 지원”, 『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토론 및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식』자료집,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92p.

2) Danielle Laraque, M.D. Amy Demattia, M.D. Christine Low, L.C.S.W(2006), “Forensic Child Abuse Evaluation : A Review”, The Mount Sinai Journal of Medicine Vol. 73 No. 8? December, 1141p.

3) 정경자(1991), “순결”,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한국성폭력상담소(역음), 동아일보사, 50p.

4) 토하나의문화(2005), 『우리 몸·우리자신』, 보스톤여성건강서공동체 지음, 포문출판사, 259p.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국가배상 책임¹⁾

◎ 본 상담소 법·정책 자문위원, 군 법무관 이경환

I.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국가배상청구로 제동을 걸다

1. 문제의 제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 인 조치로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해야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수사기관의 편견과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질문과 모욕적 언행, 피해자에 대한 비난, 필요 없는 반복 조사와 가해자와의 대질 조사 등등, 이른바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문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제도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면을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잘못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2. 사례의 소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면

상 생략하기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들(성폭력 피해자인 자매 2명과 그 어머니)이 주장한 2차 피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잘못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과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었다. ② 담당경찰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이름을 누설하고 비하 발언을 하였다. ③ 여성경찰에 의한 조사요청을 묵살하였다. ④ 가해자를 지목하게 할 때 범인식별실을 쓰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고르게 하였다. ⑤ 피해자 조사 시 진술녹화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⑥ 원고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가해자측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⑦ 피해자가 학생이어서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하는데 밤샘조사를 하였다. ⑧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장시간 피해자 조사를 하였다. ⑨ 감식실 담당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너

1) 이 글은 ...에서 발표된 이경환,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판단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면상 생략된 내용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문을 참조하시거나, 판결문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쟁점과 입장

info. in common

희들 밀양에는 뭐하러 갔노’, ‘밀양물 다 흐려놔다’ 라며 비하 발언을 하였다.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0781 사건)은 위 주장들 중 ①과 ②의 인적사항 유출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여 각 7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제1심 판결은 ③과 ⑦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았고, ⑨에 대해서는 비하 발언을 한 경찰이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 아니어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이하 ‘엄격한 위법판단 기준’이라 함)은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불법행위의 인정범위를 줄이는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

2심인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18

사건)은 ④와 ⑨에 대해 1심과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면서,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은 1심의 엄격한 위법판단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이하 ‘일반적 위법판단 기준’이라 함). 그리고 감식실 경찰 역시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고, 감식실이 피해자들의 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 1에게 3000만원, 2와 3에게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대법원(2007다64365 사건)도 항소심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였다.

II.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권면책의 원칙에 의해 국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점차 모든 국가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의 인정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수사기관의 행위이다.

수사업무는 재판업무와 비슷한 성격으로 중립성과 특수성이 있고, 만약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수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책임제한의 주된 근거가 된다.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되는데, 대체로 직무행위 기준설과 일견명백설(엄격한 위법판단 기준)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여러 사안에서 일견명백설과 같이 엄격한 위법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학계와 판례의 태도는 2차 피해

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위 사안들은 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동안 수사를 받았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 것들이어서, 이러한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이 2차 피해에 대한 판단기준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서 좀 더 쉽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수사기관의 행위이지만, 엄격한 위법판단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위법판단 기준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 변화를 가져 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사례가 많지 않아 선불리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 유지된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III. 피해자 보호 규정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결과로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왔다.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매뉴얼, 인권보호 수사준칙, 성범죄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등 여러 피해자 보호규정들도 그 중 하나이다. 이들 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실무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은 대부분 위 규정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판례는 이러한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단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규칙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

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극적 해석은 피해자 보호 규정의 의미를 반감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례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각종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단지 과시를 위한 빗 좋은 개살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태도가 다른 사건에도 널리 적용되어 피해자 보호 규정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이번 판결의 의의와 전망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더 이상 2차 피해의 문제가 단지 연약한 피해자를 배려하고 감싸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후의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밭샘수사나 피해자 보호조치, 대질수사 등에 있어 2차 피해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판결이 단지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의미로 남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의 홍보 및 기획 소송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적인 배상은 2차 피해의 아픔을 충분히 치유하기 어렵다. 2차 피해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국가배상 청구는 2차적인 대응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일선 수사기관들이 2차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우리가 이번 판결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

거꾸로뉴스

나눔터
info. in common

군내 스토킹 사건의 이모저모

◎ 여성주의상담팀 이산

한겨레 21에서 '여군 군악대장 스토킹 사건'으로 수 차례 보도되었던 군내 스토킹 사건이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은 현재 형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죄명인데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재판은 스토킹 가해자가 법의 처분을 받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허위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이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의 개요는, 스토킹 가해자인 S소령이 여군 P대위를 작년 9월 강요, 직권권리남용, 항명 등으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한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2008년 2월, 피해자인 P대위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야 이 사건을 접했다. P대위 본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상의하게 된 것은 1심 선고를 앞둔 2008년 3월 말이었다. 이미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급히 의견서를 발송하였지만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항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항명은 말 그대로 명령에 반항한 죄이다. S소령이 P대위를 고발한 내용은 남성군악대원들이 외부 행사 지원을 나갔을 때 팬티만 입고 바나나 보트에 타도록 강요하였다는 것, 지나친 열차려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것, 회식 후 4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등 20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었다. S소령은 헌병대 조사가 진행되던 중 항명과 상관모욕으로 P대위를 추가 고발하였다. 지난한 조사와 12시간의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수십 가지의 사건 중 단 2건의 항명이었다.

1심 공판기록에는 P대위의 유죄를 주장하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다. P대위의 음주운전을 증명하기 위해 회식자리에 있던 병사들에게 P대위가 그 날 회식에서 마신 술의 양을 진술하게 했다. 진술한 전원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모두 다르게 진술했음은 물론이다. 과도한 열차려를 받았다고 했던 병사는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헌병대 조사 중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과도한 열차려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하였다. 군검찰의 항소이유서에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이와 같은 항명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는 한탄조의 내용과, P대위가 평소 문제장교였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편견이 가득했다.

P대위는 본 사건에 대해 직접 언론에 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내 문제를 외부에 직접 알리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내에서 P대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소속 사단 안에서 열린 1심 재판은 일방적으로 S소령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여군고충상담관이나 군내 인권보호 시스템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상황을 보다 못한 P대위의 지인이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면서 한겨레 21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우리 상담소가 P대위를 직접 만나면서 사건 지원을 상의할 수 있었다.

1심이 끝난 뒤, 우리 상담소에서는 P대위를 지원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군내 성교육, 군내 인권침해와 성차별 문제, 성폭력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단체들이 만나서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했고, 5월 15일에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날 6월 10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 P대위에 대한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자원활동가, 기자, 그 밖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1차, 2차 공판과 선고에 이르기까지 20~30여명씩 꾸준히 법정에 나와 자리를 지켰다. 공동대책위와 함께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어, 2~3명의 인권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여 P대위를 변론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4시간에 이르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S소령의 스토킹 행위를 조목 조목 밝혀내기도 했다. 결국 7월 15일,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P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대위의 무죄판결을 주장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7월 22일 군 검찰은 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공동대책위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고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S소령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과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에 집중하려 했으나, 현재는 3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늦춘 상태이다. P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사단을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막고 책임을 묻는 방법도 추진하였으나 사단장 면담은 거부되었다.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지원하면서, 우리는 조직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사건이 얼마나 부당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진급에 대해 평가, 결정을 내리는 평정권을 쥐고 있는 상관에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군 생활을 위태롭게 할 뿐더러, 같은 이유로 군생활을 계속 하고자 하는 동료들도 피해자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장적인 군 문화 한가운데에서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자신의 피해를 차단하는 것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 항명이나 상관 모욕, 위수지역 이탈 등 군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죄명들이 피해자의 발목을 붙들고, 진급에 대한 부담이 어깨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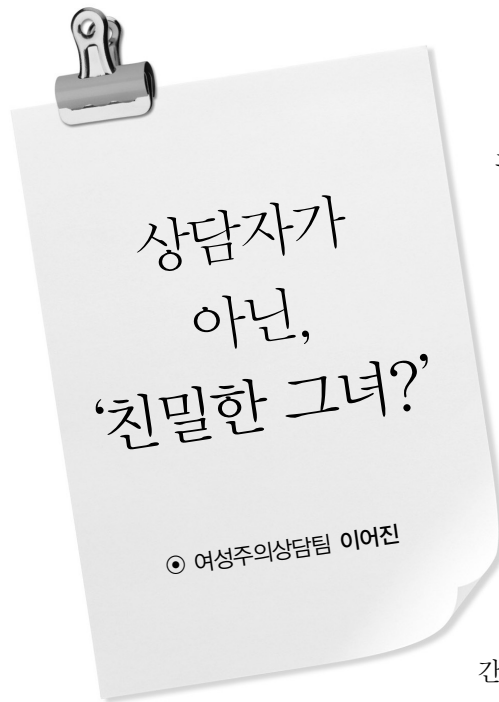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은 회의 때마다 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군복무를 마친 주변인들의 에피소드부터 이슈화되었던 군내 성폭력 사건, 정책 제언의 방향까지. 가벼운 수다부터 진지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까지, 회의 때마다 논의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지만, 겪어 본 사람들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처럼 고민하지 않는 곳. '군대에 다녀온 당신이야말로 진짜 국민'이라고 포장하면서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폭력문화를 양산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런 거 겪으면 사회에 나가서 다 도움 돼'라고 변명하는 곳.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민을 보호한

다는 발상에 시작된 군이 어떻게 인권 보장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3심 판결을 앞둔 군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어깨는 아직 무겁기만 하지만 항소심 승소의 기운을 받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



상담실에서

나눔터
survivor's voices



상담자와 내담자가 존재하는 상담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난 이후, 상담이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상담에서는 서로 만나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오고,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 부분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둘은 그 관계에 익숙해 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는 되도록 사적인 만남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시간 이외의 자리에서 서로를 탐색할 기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상담시

간동안 정들고, 서로 괜찮은 사람으로 자리를 잡

았다면 상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서로의 관계 자체를 끊기

는 쉽지 않다. 서로 또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한편 너무도 당연하게 말이다.

고즈넉한 상담방에서 서로를 보다가,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음식을 먹으며 서로를 만나는 그 설렘은 참 좋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닌 또 다른 관계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아주 나쁘지 않은 상담자로 나를 생각해주어 고맙고, 무엇보다 다시 만나고 싶은 내담자로 남아주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새로이 생각해 내고, 휴대폰의 이름도 바꿔 쓴다. 덜 공식적이고, 덜 무거운 명칭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렘과 여러 시도는 바뀌는 명칭만큼, 변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욕구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만나는 장면이 달라졌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욕구가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알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서로에게 천천히 편해질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나는 상담에서 늘 이야기하는 동등함, 편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 때는 요구를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서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담원과 내담자의 관계가 꼭 그런건 아니지만 (상담이 끝나고 난 지금은) 가깝게서 오히려 동등해져서 편하다.??

[수애]

그녀보다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 그녀의 입에서 대책을 끌어낼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좀 감정적이 되어도 털 민망하고, 미안한 짓을 했어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 뿐이고,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염두 하지 않아도 되고, 만날 때마다 그녀의 내면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집중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예전보다)친밀해졌다. 그러면서 지금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궁금하다. 또 한편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 하려 해서 좋아졌다. 하지만 연락이 끊어지게 될까봐 불안감이 드는 것 같다.??

[수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내가 좋아하는 그녀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사실 내담자와 상담자로 만난 이들의 관계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호감만으로 충만된 얇은 얼음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이후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는 서로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차곡차곡 처음부터 쌓아가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지난겨울 정말 춥던 날 까칠한 그녀 수애와 만났다. 나는 평소처럼 자기주장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애기처럼 징징거리면서 투정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펄펄 날면서 나를 공격할 줄 알았던 그녀는 조용했다.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나는 한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얼마간이 지나 그녀가 연락이 오기까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는 다시 만났고,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지 대략의 감을 잡은 듯 했다. 상담자였던 내가, 내담자였던 그녀가, 서로에게 친밀한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서로의 존재에 대해 재정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천천히 가기로 했다. 갑작스레 호칭을 바꾸기보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갑작스레 말을 놓기보다 어떤 관계를 지향하는지를 물었다. 앞으로 천천히 더 친해지자고 말이다. 그래서 오래오래 서로에게 친밀한 사람이 되자고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애정을 표현하고, 나누기로 했다. 서로의 존재감을 깨닫지 않고, 관계의 층위가 탄탄해 질 수 있도록 말이다. ☺

상담실에서 - 상담자가 아닌, '침묵한' 그녀?

생존자 말하기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꼭지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채워지며, 연재 혹은 단회로 독자 여러분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가 열 번째 이야기와 '진'님의 사연이 지난 호에 이어 실렸습니다.

연재 10th

산 1-1번지

◎ 水

경기도 00군 00리 산 1-1번지, 2008년 4월 5일 동료들과 산에 갔다. 날씨가 포근하고, 불어 오는 봄바람이 싱그러운 그런 아침이었다. 좋다, 나의 편안한 일상이.

나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산책을 했다. 햇살도 따사롭고, 화창한 기분 좋은 오후였다. 시골이라 대중교통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적었다. 가끔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정도였다. 낮잠이라도 한숨 자고 싶은 평온한 시골에서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산속에서 화장실 갈만한 장소를 찾던 중 가까운 곳에 있는 기도원을 찾았다. 동료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 평화로운 나의 오후 속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자는 운전이 정신이 팔려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려진 차창을 통해 나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빠란 사람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금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깨어나려고 노력해야하는 꿈인지 알 수 없었다. 가위에 눌린 듯 온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옆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내 뺨을 스치는 봄바람이 아니었다면 소리라도 치며 꿈에서 깨어나려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었다. 현실, 실제 내 삶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순간 그곳은 나와 그 사람만 있는 진공상태의 시간과 공간이 되었다. 내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지만 나 혼자 그 공포스런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다.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나를 강제로 끌고 어디론가 데려갈 것 같았다.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머리채라도 잡고 그 사람만을 위한 고립된 공간, 집구석으로 끌고 갈 것 같았다.

너무도 평화로운 나의 일상 속으로, 어떤 예상도 하지 못한 나의 안전한 시간 속으로 그 사람이 불쑥 들어온 그 순간. 나는 “겁”속에 빠져버렸다. 아니 “겁”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순간 나는 없고, “겁”만 존재했다.

“겁”은 몸이 느끼는 걸까? 마음이 느끼는 걸까? “겁”을 표현하는 건 말로 가능할까?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겁이 났다고 말하고 나면 겁에 휩싸여 있던 감정이 좀 풀릴까? 어떻게 하면 이 기분 나쁜 “겁”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 사람의 차가 몇 걸음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어 갑작스레 몸을 돌려도 티가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옆에서 있던 팀장님께 귓속말을 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같이 저 밑에까지, 안전한 데까지 같이 내려가 줄 수 있어요? 같이 내려가줘요. 그냥 아무 것도 묻지 말고, 뒤 돌아보지도 말아요.”

“그래.”

한발을 내딛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사람이 알아채고 뒤따라올까 겁도 났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뒤돌아보고도 싶었다. 그러나 목이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쯤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 오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왜 이곳에 나타나? 일부러 찾아오라고 약도를 그려 줘도 찾기 힘든 이곳에 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난 거야? 미친 놈 지 놈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내 눈앞에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거 아냐? 왜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지랄이야. 몸이 떨리고, 솟아날 것 같지 않았던 눈물이 내 눈에서 솟았다. 이 눈물은 무엇일까? 두려움일까? 뭐가 두렵단 말인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내 몸에 대한 짜증도 눈물에 섞여 나왔다.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도망가지 싶어 더 짜증이 났다. 그러면서도 내 발은 여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한발 한발 멀어지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성큼성큼 걸어가고 싶었다. 내 속의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따지려 돌아서고 있었고, 실제의 나는 조용히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야, 너 여기는 왜 왔어? 지금은 내가 여기 볼 일 있어서 왔으니까, 너 나가!”

시원하게 내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머릿속에서만 할 수 있는 소리였다. 실제 나는 여름 같은 봄날씨에 덜덜 떨며 차갑게 얼어붙었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콧물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멋지게, 당당하게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말하고 따지고 싶은데 내 몸의 어느 것 하나 그런 나의 생각에 장단을 맞추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 숙이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몸까지 떨어가며 그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니..... 너도 별 수 없구나 싶어 더 눈물이 났다.

팀장님은 조용히 같이 걸었다. 내 몸에서는 내 머리로 어찌할 수 없는 눈물과 두려움이 흘러나와 나를 녹여버렸다. 내 몸은 머리로, 마음도 넘어서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듯 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입힌 상처에 대해 떠올리는 것과 사정거리 이내로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면에서 내 몸은 머리와 마음보다 더 예민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듬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알아채는 더듬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과 ‘영혼’이 죽음만큼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는 ‘몸’은 관념적 두려움과 상처에 대한 기억을 뛰어넘는 감각으로 아파했다. 내 몸은 내가 또 맞을까봐, 또 그 사람에게 끌려가 갇히고, 원치 않는 그 짓거리를 당하게 될까봐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그 몇 초 동안 내 몸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60cm도 안 되는 몸이 그걸 느끼느라 부대끼고 있었다. 내 온 몸, 내 모든 세포가 그 사람에 대한 겁에

질려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세포들도 하나하나 입을 열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 너무 겁나, 어떻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가!”

몸의 미세한 떨림들이 계속되어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안정이 되자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도망가나 싶었다. 서로 마주 치면 도망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 있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무기가 될 만한 돌덩이라도 들고, 그 사람 얼굴을 찍어주고 싶었다. 어떻게 얼굴 똑 바로 들고, 기도원에 들어서는지. 또 여기서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지. 적어도 신경 써서 내 눈앞에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어디 하늘 아래 얼굴 들고 돌아다니다 나랑 마주치기까지 하나 싶어 화가 났다.

오후 일정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삶이 휘둘리는 것 같아 싫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내 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실컷 울고 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했다. 물론 2분 거리에 그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운전하던 것과 비슷한 차가 지나가면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나는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마치고 서야 서울로 돌아왔다.

동료들과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오늘 누구 봤을 거 같아? 나 오늘 산에 나무 심으러 갔잖아, 누구 마주쳤는지 알아?”

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정답인 “그 사람, 아빠”를 말했을 때 모두들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친구는 왜 기도원 화장실을 이용했냐며 기독교 쪽에는 오줌도 누지 말라고 농담을 했고, 다른 친구는 장난 아니라며 완전 내 삶이 영화 같다고, 드라마 같다고 했다. 나와 아빠의 악연을 아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다. 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내 글을 좋아라 하는 친구는 ‘야, 너 이 이야기는 쓰면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줄 알겠냐. 뭐 드라마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 드라마 보면서 에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우연히 만났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잖아 완전 대박감인데...’라고 했다.

그래 기막히지. 근데 그런 일들은 내 인생에 수두룩 뻑뻑하다구, 쳇.

암튼 15년 가까이 그 사람을 안 보고 살았는데, 심지어 동생들의 결혼식도 가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그 면상을 마주치게 되다니.....

“산 1-1번지 사건”이후 몇 달이 지났다. 살이 3kg정도 빠졌다.

난 왜 내 삶을 글로 쓰고 있는 것일까 다시금 생각해봤다. 내가 아빠란 사람에게 당했던 성폭력 피해는 그 사람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자이

다. 갑자기 언젠가 읽었던 안네의 일기와 빅터 프랭클의 글들이 떠오른다. 독일군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순간들의 기록. 그들의 글을 보며 울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고통의 시간과 극복의 기록을 보면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더 단단히 했다. 나의 글을 쓸 것이다. 필력이 떨어져도 쓸 거다. 글을 쓸 공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도 읽는 이 없더라도 쓸 것이다. 나를 위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위해. ☺

〈다음 호에 계속〉

■ 水의 한마디

내가 겪은 일은 역사적으로 누구나 기억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빠란 사람으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나 두 사람만 안다.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살다 죽으면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일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글로 쓰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더러운 짓거리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 그 사람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사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게 있어 그 사람이 한 짓들은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숨쉬고, 결국은 탈출하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정도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나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만 있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왜 그런 느낌이 내 속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맘대로 할 때부터 죽고 싶었다) 알고 싶었다. 그 이유를 밝히 알고, 치유의 길이 있다면 제대로 걸어보고 싶다. 그렇다고 내가 우울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막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말려서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나를 찾아오곤 한다.

내가 어찌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는 것들이 내 안과 밖에 있다. 원치 않았지만 개같은 아빠에게서 태어나 자라야했고, 그나마 화해가 되어 잘 지내보고 싶었던 엄마는 갑작스레 일찍 돌아가셨다. 나는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 사회생활하며 티내지 않으려고 별 지랄 다 해봤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지랄 같은 노력조차도 티 나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티내지 않고 한다. 티를 내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혼자 속으로, 속으로 해야 그나마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참 많다.

"저도 아빠란 사람한테 엇같은 짓거리 당해서 당신네들처럼 하하호호 잘 못하고, 사회생활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못하고, 좀 꼬여있고, 아니다 싶으면 막 하는 거거든요. 당신들 내가 겪은 일 겪고 살아왔으면 지금 나보다 더 하실 거 같거든요. 암튼 나 힘들면 다 뉘버리고 싶은 맘 굴뚝같거든요."

이런 나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그 아빠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몸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휘감겨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글을 쓰는지 모른다.

완전히 벗어나는 날, 나는 다 쓴 원고를 가지고 불을 싸지르든, 비행기를 접어 날리든, 책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 사람에 대한 겁에서 풀려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산 1-1번지" 뿐 아니라, 단 둘이 집구석에서 마주치게 되더라도 겁나지 않겠지.

연재 2nd

말하기를 가해자를 고발하다

◎ 진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아니야.
마음을 다잡고 다잡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린다.
심장 박동소리가 크게 다가온다.

프놈펜에 도착하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나보다 두 달 먼저 들어와 있던 그 사람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건물 1층 외부에 식당과 샤워실을 만드느라 고생한 일을 마치 전쟁 무용담을 풀어내듯 두고두고 자랑하는 사람이다. 각 방에 침대와 서랍장 등을 구비하는 일 정도로 2개월을 허비했다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진하게 물들어있는 개차반에게 해외 개발단체의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다.

당장 시급한 과제가 센터 내에 통신망을 갖추는 일이었다. 캄보디아 파견 직후의 밤부터 왕성한 그 인간의 성욕을 짐작케 하는 온갖 음담패설을 듣고 난 후, 컴퓨터 조작법을 방에 들어와서 알려달라는 그 사람의 끈질긴 요구에 시달리는 일이 잦은 때였다. 낮 동안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프놈펜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거리거리를 오토바이로 누비며 전화기와 컴퓨터를 사고, 보다 저렴한 인터넷 요금 패키지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날마다 외교부에 들락거리고, 복사하는 데에 들르고, 문구점과 인터넷가 패를 찾아다녔다. 한국 본부에서 나에게 사서 들려 보낸 노트북은 사실 센터 공용이었지만 밤마다 그 사람 방에 모셔져 있다가 낮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 대학 생 여직원에게 책 전체내용을 타이핑시키는 일에만 사용되곤 했다.

센터에 처음 데스크탑이 설치되던 날, 마땅한 책상조차 없어 컴퓨터 포장상자를 바닥책상으로 삼고는 본격적인 서류작업에 들어갔다.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일 외에도 분초를 다투는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민간단체로서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만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외국 NGO로 현지 정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경악할 수준의 깨달음을 얻게 된 일은 컴퓨터를 들여온 다음날에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2층 베란다 거실에서 내 방으로 통하는 입구에 자리한 방의 문 옆에다 데스크탑을 임시로 설치해놓고, NGO 등록 시 요구하는 제안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직급상 권한도 없는 내가 제안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이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할 것이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전무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 본부의 간사나 부장급 실무진에게 재차삼차 문의해봤지만 정확히 알고 말해주는 이 하나 없었거니와, 외부 보조금 신청 시 작성했다는 등성 등성한 20페이지짜리 서류 내용은 죄다 뜯구름 일색이라 건질 정보가 없었다.

혼자서 끙끙대며 수십여 페이지를 작성하자니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갔다. 그렇게 허위로 일관한 제안서를 이 곳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니 눈앞에 닥친 현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해외에 딱하니 벌여놓은 일을 어떻게 꾸러갈 것인지에 대해 사무총장을 비롯해 단체의 어느 누구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 서류를 꾸며 외교부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을 이유로 두세 번 퇴짜를 맞고 나니 더욱더 기운이 빠졌다. 제안서 항목 중 예산 집행계획은 나 혼자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바로 그 날, 그 부분에서 막히자 방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그 사람을 불렀다. “선생님, 이 것 좀 봐주세요.”

한참 설명을 하고 있으려니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내 말을 번번이 잘라먹는다. 무조건 큰 액수로만 적으란다. 항목별 용도나 추정금액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센터장이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돌아선 순간, 그 사람의 징그러운 손길에 등 뒤에서 느껴진다. “우리 이 간사는 재원이야. 계속 수고하라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가증스러운 격려의 말과 함께 그 인간의 손이 내 등을 훑고 있었다. 찰나에 벌어진 일이었다. 상의 뒷면 등 위로 난 브레이저 자국을 따라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선을 그려가더니 심지어는 장난치듯 잡아당기고 등을 어루만진다. 순간, 공포보다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는 게 느껴졌다.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금 내 옆에.....

연이어 충격에 휩싸일 만한 일이 또 벌어졌다. 그 사람과 한 건물에서 생활한지 일주일 반 남짓 흐른 시점이었을 거다. 센터에 데스크탑을 들여온 후 며칠 걸려 인터넷 설치까지 마친 날이었다. 다른 때에 비해 유난히 정신없이 바빴던 날로 기억된다. 매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대학생 남녀직원을 대문 밖까지 배웅하고 건물 안으로 돌아와 2층을 향해 올라가려던 바로 그 때였다. 스킨십을 시도할 때면 역겹기 짝이 없는 특유의 표정과 말투로 변하는 그 사람이 내 등 뒤에 서 있었나 보다. 앞서 걸던 나를 뒤에서 외락 끌어안는다. 사타구니까지 내 엉덩이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였다. “우리 이 간사, 오늘 참 수고 많았어. 어디 한 번 안아보자.” 싫다고 내뺨 튼도 없었다. 내 왼팔의 여린 부분을 희롱하듯 훑어내리며 양 팔까지 뒤에서 감싸 안더니 손으로 내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게 아닌가! 내색 한 번 못하고 참고만 있었더니 결국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이 개새끼를 어떻게 하지. 내가 아는 온갖 종류의 욕을 속으로 해댔지만, 이미 시작된 온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자리를 어떻게 모면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그 충격 직후부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뿐이다.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와 저녁식사를 준비한다고 분주히 1, 2층을 기계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고 계속 안간힘을 썼던 일과 저녁 준비 2시간 내내 몸의 떨림이 그치지 않았던 일이 기억난다. 한 번 눈물을 쏟으면 나 스스로도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사람이 먹을 밥과 국을 내 손으로 끓이고 있다니. 기가 막히고 또 막혔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후환이 두려워서 또 다시 탐구하자니 정말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뭐라고 말을 하자니 저 개 같은 성질을 어떻게 감당할지 태산 같은 걱정이 앞섰다.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겠어. 이대로는 정말 아니야. 마음을 다잡고 다잡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린다. 심장 박동소리가 거실에 켜진 TV 소리보다도 크게 다가온다. 내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그 사람과 마주했다.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한 마디를 건넸다. “저..... 선생님. 아까요, 제..... 가슴..... 만지셨죠?” 그 와중에 미움 사는 게 무서워 그랬는지 의도와는 다른 말투와 톤이다. 이게 아닌데. 이건 마치 왜 저거 안 사주냐는 식의 양탈 같잖아. 이번엔 나 자신한테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도 말을 이어간다. “한국에서 젊은 남자가 그랬다면 정말 가만 안 있었

을 텐데, 선생님이니까 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봐준다는 얘기는 왜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별 반응 없이 식사에 열중하던 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끼절인다. “아,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간사 가슴을 만졌다고? 나 그런 적 없는데.....” 끝이었다. 더 입을 떼기도, 더 이상의 대꾸를 요구하기도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운을 떼 건데, 뭐라도 말해보겠다면 굳은 결심 끝에 나온 말이 어째서 그 모양이었는지, 저 인간은 왜 그렇게 쓰레기 같은지, 그 날은 심하게 뒤척이다 결국 밤을 꼴딱 지새웠다. 심장이 고장이라도 난 듯 덜덜거려서.

그 사람과 탁자 건너편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으면 가끔 모기향 쪽으로 가까이 오라는 핑계를 대며 자기 쪽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내가 앉은 의자를 통째로 끌어 본인 가까이에 앉혀놓으면, 어김없이 추잡스러운 행각을 이어갔다. 은근슬쩍 바지 위로 허벅지를 쓰다듬는 건 예사고, 내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을 때면 (긴 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손을 내 바짓단 속에 넣어 종아리를 훑기도 했다. 심지어 의자 다리에 베개를 놓고 기대 누워 당연하다는 듯이 내 종아리를 주물럭거린 적도 있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놀미칠 정도로 답답해하곤 했다. 분명 사회통념상 도를 한참 넘긴 짓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했나? 어떻게? 구두 표현으로? 아니면 아예 부딪힐 자리를 갖지 않도록 매번 피했어야 했나? 당시에도 지금도 적당한 묘안은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당시에는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적 이슈에 상당히 무지한 상태였던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확실히 확인한 바는 현지 여대생 직원과 요리사를 비롯해 여러 여성들에게 나한테 한 것과 비슷한 짓들을 저질렀다는 점과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무수히 읊조렸던 성희롱적 발언들을 녹취라도 해놓았다면 좋았을 텐데. 귀국 후 결국 업무 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죄로 그 사람을 형사고소한 후 조사 과정에서 내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계서 해주 신 조언을 직접 읊기면 이렇다. “녹음이라도 해놓았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 새끼를 확 그냥 조져 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발등을 콕 찌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랬구나. 생각해보니 MP3도 갖고 있었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간단한 것을, 이런 바보천치 같으니라고! 처참할 정도로 나 자신이 멍청이 같다고 느꼈다. 정말 이렇게 무뇌아일 줄이야.

날마다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을 다반사로 겪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로 목숨 걸고 핏대 세우는 그 인간을 마주하고 있자니 고문이 따로 없었다. 일은 일대로 더디게 진행되고, 할 일은 많은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영어 동어반복으로 지시하며 북아대는 정도니 모든 일을 나와 다른 두 대학생 직원이 도맡아서 해야 했다. 몸도 마음도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함에 밤마다 선잠을 자고 날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 내게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르지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같은 한국어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려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물론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여러 모로 한계가 크게 느껴져, 한 번은 걱정하고 한국 본부에 전화를 건 적도 있었다. 여자 본부장이라면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줄 것 같아 인터넷폰에 대고 “여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더러운 일을 겪었다”고 운을 떼며 울먹거렸지만, “조금만 참아. 정 못 견디겠으면 내가 갈게.”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더럽다”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지? 못 들은 것 같진 않던데. 그 때는

의아했지만, 나중에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단체의 파렴치한 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프놈펜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후 약 2주 정도 됐을 무렵,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맞는 두 번째 토요일,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일들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센터 현판 디자인에 대해 내가 그 사람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절충안을 이끌어내려고 고집하자 그 개 같은 성질에 불꽃이 튼 것이다. 나와 그 사람 외에 캄보디아인 4명이 함께 앉았던 자리였다. 그 상황에서 그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했었다. 당시 얼음조 각처럼 굳어버린 다른 네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폭력 행사의 장면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욕하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보다도 공포에 질린 여대생 직원과 그 자리를 피해 복사 핑계를 대고 외출했다가 그 여대생으로부터 실로 경악할 만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다. 자신에게도 하드코어 포르노 CD를 주며 집에서 부모 몰래 보고난 후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단다. 심지어 딸에게 저지른 짓까지 서슴없이 밝힌 모양이었다. 1층에 머물던, 그만둔 이전 요리사에게까지 마스터베이션을 해달라고 강제로 요구했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근처 시장에서 이불을 팔던, 눈에 확 띄 정도로 예쁜 여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도 호텔에서 만나자는 전갈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대충 얼버무렸다는 일도 내게 털어놓았다. 싫다고 거부한 적은 없냐고 물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오히려 내게 반문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근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짓을 얼마나 하고 다닌 거지? 그 새끼를 잡아다 찢어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당장 내일모레면 한국에서 청소년봉사단이 여기로 올 텐데, 뽕족한 대안은 전혀 없었다. 그냥 저 새끼가 죽도록 싫었다. 저 쓰레기의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오버하는 손짓 몸짓도 죄다 하나하나 떼어다 시궁창에 처박아버리고만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기대감에 부풀어 해맑은 표정을 한 아이들이 곧 오잖아. 어떻게 하지?

일단 고비는 넘겨야 했다. 이 간사 같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며, 본부에 연락해서 본인이 그만두든지, 이 간사가 떠나든지 해야 한다며 그 폭력미수 사건이 있던 날 밤 그가 나를 다했다. 인내심이 강그리 독기로 분한 내게 그것은 도발과도 같았다. 될 대로 되어버려라, 이제, 도저히 상종 못할 인간.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잘못된 것도, 아쉬울 것도 없으니 편한 대로 하시라고 처음으로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제 상당히 의외였나 보다. 분을 못 이겨 있는 대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미 그 때 나는 희망이란 단어를 거의 잊고 있었다. 정말 그만두어야 할지, 그렇다면 언제쯤 그래야 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저 인간과 계속 함께 일해야 하는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애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소중한 경험이 될 텐데, 청소년봉사단의 현지 실행 프로그램을 계획한 건 그 사람이었다. 물론 엉망으로, 1/10이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한데,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각오는 단단히 하고 왔건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철쭉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만 같았다. ☹

〈다음 호에 계속〉



Diary 열린터 다이어리

나눔터
survivor's voices

6월

꿈 찾기 발표회
독거 할머니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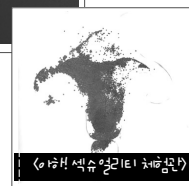
7월

달빛시위 교육 및 참가
독거 할머니 방문
성교육 시간
<발도르프 학교> 여름캠프



8월

<어둠속의 대화> 관람
<아하! 섹슈얼리티 체험관>
<님은 먼 곳에> 영화 관람
여름 물놀이 다녀왔습니다~ ^^
독거 할머니 방문, 좌담



요즘은 여름 방학이라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길지만 짧은 것이 방학이라,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 하려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린터에서 진행하는 전체 일정들 하라,
각자 공부나 운동, 취미 활동들도 챙겨서 하느라
열린터 식구들의 방학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초까지 있었던
재밌는 기억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이 지나면
열린터 활동가인 혜옥샘과 사자샘 두 분이
3년 근속의 업적(!)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두 선생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나눔터에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열린터 소녀들의 꿈찾기

◎ 열린터 원장 사자



▲ 꿈찾기 진행자 모모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뭘 잘 하고,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계획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회는 7주동안의 행진끝에 준비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된 우리들은 소녀들의 발표를 진지하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보려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팔 수 있는 가게의 사장님이 될 것입니다. 봉봉은 친환경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그 학교의 후원자로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발한 상상력과 환타지가 가득한 소설을 읽으면서 킥킥덕, '역시 이리가 쓴 책은 너무 재미있어' 할 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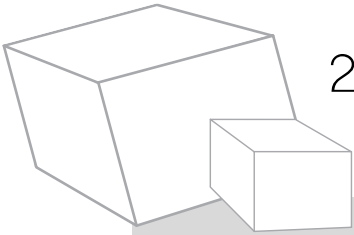
꿈을 꾸는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



▲ 아이들의 꿈찾기 발표물

열린터 생각 - 열린터 소녀들의 꿈찾기

열린터 생각



2박3일 <발도르프 학교>

여름캠프 릴레이 후기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안성허브마을에 2박 3일 동안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2박3일 동안 세아 선생님과 함께 이름도 낯선 <발도르프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예술교
육들을 체험하고, 톡톡히 허브마을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후기는 참가했던 식구들이 이어서 쓴 글입니다.
지면 관계상 줄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글들을 너무 잘 써서 줄이기가 쉽지 않네요.
글의 전문은 열린터 블로그(www.yeolim.or.kr)에 올려오셔서 보세요 ^^

나눔터
survivor's voices

가는 길

_거북

나는 마무리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도착했다. 사실 꼼꼼하지 않은 성격에 꼼꼼하게 챙기려니 마음이 급하다. 예정대로 8시 반 쯤에 모여 아침 나눔을 하고 나서 출발했다. 해은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다. 모두 8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전철, 버스로 이동하려니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다. 차 안에서는 2박 3일 식사 메뉴도 정하고, 안성이 시골인가 아닌가 이야기도 하니 시끌시끌하다.

정류장에 내려, 근처에 안성에서 유명한 중국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로 들어갔다. 나와 봉봉, 핑체는 메뉴에 맞춰서 장을 봤는데, 너무 알뜰히 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특히 고추장을 안 산 것은 나중에 큰 노동으로 돌아왔다.) 짐 정리 하고 첫 프로그램을 기다렸다.

습식
수채화 1,2

_이리

처음 집에서 캠프 일정에 관해 설명 들었을 때만 해도 수채화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저게 뭐냐. 예아..... 재미 없겠다, 찼.' 정도의 실망감 내지는 불만뿐이었다. 도착해서 좀 쉰 다음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스케줄이 수채화였다. 난 에어컨으로 기진맥진+별 생각 없음 반, 약간의 호기심 반으로 하얗고 길쭉한 상 위에 보도블록처럼 놓인 7개의 나무판들을 바라보았다. 상 중간 중간에 물통과 붓, 손수건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수채화 시간 같기는 했는데 뭔가 희한했다. 그래서야 뭔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아 쌤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나무판에 고루 묻히라고 하셨다. 다들 어리둥절해 했다. 그 후 상에 파란 물감들이 놓여졌다. 물에 푹 젖은 도화지에 발라서? 칠해서? 어쨌든 자기 내키는 대로 해서 도화지





에 면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다음엔 노랑, 마지막은 빨강이었다. 이렇게 작업했던 것을 모아서 한사람이 말했다. 내 것만 정신없이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한 것도 보니까 뭔가 재밌었다. 7개 모두 다 다른 것들을 표현해 냈다는 게 꽤나 신기했고, 내가 느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언니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그것도 꽤나 신기했다.

그리고 두번째 수채화 시간이 왔다. 두 번째 날은 전에 쓴 색들을 서로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어 내는 거였다. 난 이쪽이 훨씬 더 재밌었다. 제일 처음 한 색은 초록색이었다. 파란색을 먼저 한 후 노란색을 했는데 예상대로 초록도 여러 가지 초록이 나와서 진짜 좋았다. 또 초록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다. 진짜 재밌었다. 뭔가 차분하면서도 활동성을 잃지 않았다. 그 다음은 주황색이었는데 이걸 거의 기억이 안 난다. 진짜, 수채화 다 끝난 바로 직후에도 거의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노랑 때문인 것 같다. 마지막은 보라색이었다. 빨강을 먼저 했는지, 파랑을 먼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난 보라색을 별로 안 좋아한다. 뭔가 보고 있으면 심란해진다. 어쨌든 그래서 좀 하고 있는데 세아 쌤이 계속 그 래왔던 것처럼 붓을 중구난방으로 휘두르지 말고 한 방향으로만 하라고

하셨다. 난 심히 기분이 나빴다. 선생님이 아무 이유도 안 말해 주시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만 하셨기 때문이었다. 난 물감 하나 버렸단 생각으로 하긴 했다. 그렇게 하니깐 다른 것들보다 색이 잘 나오긴 했다. 나중에 다 끝나고서 세아 쌤이 말씀해 주시길, 붓의 움직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색 자체를 느끼는 것이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했다. 이유를 듣고 난 수긍했다. 그리고 좀 아까웠다. 전부터 그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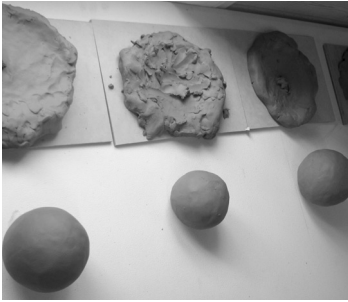
난 여름캠프에서 하는 수채화가 그 색 자체를 느끼는 활동을 하는 것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니, 상상이고 빛이고 그 전에 색을 느낀다는 발상도 거의 못 해 본 것 같다. 교육을 좀 더 받는다면 사는 게 훨씬 더 풍요롭고 부드럽고 감미로워 질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벌써 고3이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미술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될지도 모른다. 킁킁 좀 더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색에 관해 느끼고 산다면 사는 게 얼마나 멋져질까. 아니, 어쩌면 나만 이려고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에 관해 꽤 많이 느끼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난 색보단 흑백 신문이 훨씬 더 익숙하다. 내가 못 보고 산 것들이 많을 것이다.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근데 우리가 한 작품들, 왜 안 주지? ?

조소 1, 2

- 햄스터

첫 날 수업에서 수채화가 끝나고 다음은 조소시간이었다. 다들 도자기 흙을 조금씩 나눠서 각자의 앞에 놓고 세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세아 선생님은 처음에 우리들에게 먼저 흙을 납작하게 만들고 조금씩 동그란 공 모양처럼 되게 쌓아 가라고 하셨다. 다들 공 모양을 연상하면서 찰흙을 빚는 듯 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세아 선생님은 한사람마다 돌아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한마디씩 말하셨다. "정성스럽게 공 모양을 연상하면서 자세히 보고 균형을 잡아보세요"라고 하셨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벌써 진짜 공 모양같이 잡힌 사람이 몇몇 있었다. 그 중 해운이가 최고를 달리고 있었다. 조금은 다들 조바심과 답답함이 드는 듯 했다. 나도 내심 마음속으로 "난 왜 이렇게 안 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구 모양이 드러나고 정





말 찰흙에서 떼어질 것 만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았다. 그 때 세아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억지로 떼는 게 아니라 찰흙이 알아서 떨어지는 거라고 말이다. 세아 선생님은 폭 쳐진 구들을 균형이 맞도록 올려주셨다. 그러는 사이에 첫 번째로 구가 떼어진 사람등장! 바로 혜은이였다. 중간부분부터 선두를 달리던 혜은이의 구가 완성된 것이다. 정말 신기했다~ 그러면서 다들 경쟁이라도 하듯이 스피드가 붙기 시작했다. 정말 구가 떼어질 때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까?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또는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들이 남았을 것이다. 다들 구가 만들어진 걸 보면 공을 연상하고 했지만 결과물을 볼 땐 각자의 개성이

돋보였다. 그렇게 1교시는 끝났다.

두 번째 조소시간 이다. 첫 날에 만들었던 구를 이용한 작업이다. 먼저 구에 윗부분에 오목한 홈을 파내는 것이다. 다들 "이게 뭐하는 거지?" 하면서 다들 궁금증에 참을 수 가 없는 듯했다. 처음으로 나의 구가 변형이 시작되었다. 구를 반으로 잘라서 사발모양 되도록 세아 선생님이 도와주셨는데 웬지 뭔가 진행이 있었다는 거에 만족감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 모두들 해답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다들 오목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났다. 세아 선생님은 그에 맞는 변형모양을 이끌어 내어 주셨다. 나는 그제서야 지금하고 있는 것에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구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오목하게 만들었다가 점점 변화를 들어가면서 스스로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발, 항아리, 사과, 우주선모양의 접시, 석류, 행성, 이름 모를 모양 등 똑같은 구에서 이렇게 색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결과는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각자마다 찰흙에 애정을 쏟는 시각은 분명 달랐다. 세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방식(개성), 창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답에 얽매이지 않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정성을 다 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수공예 1,2

-보리

2박 3일에 걸쳐 다녀온 열림터 여름캠프. 이번 캠프는 좀 특별했다. 수공예는 첫째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시작되었다. 세아 선생님께서는 온 마루를 다 덮을 만큼의 광목천과 바느질 할 실 그리고 바늘 등을 꺼내 놓으셨다. 무언가를 디자인 하고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깐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이드로, 함께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속 바느질 간격



이 줄어들고 엇나가서 몇 번을 푸르고 다시 해야 했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잘 하게 되었다. 나는 타원형으로 하고 크기도 커서 남들보다 더 손이 많이 갔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작업이 나에게 책임감이나 노력을 심어주게 된 또 다른 작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언니들, 동생들과 함께 한쪽 벽에 나란히 등을 기대며 바느질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 나 볼 수 있었을 법한 그런 풍경이었다. 아줌마들이 둘러앉아 남편 욕을 하는 그런 모습 같았다. 우리는 남편의 욕 대신 독특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며 놀았다. 최신행, 배신자, 오백원 등 정말 배꼽이 빠지도록 웃긴 이름들이다. 웃으며 얘기하며 그렇게 바느질을 했더니 벌써 10시다. 얼추 가방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생전 처음 만들어 보는 가방이라 많이 서툴고 잘 못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나만 이렇게 잘한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해본 가람이도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우리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목광 천을 손에서 떼어 놓고 그제서야 취침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도 어김 없이 수공예는 시작되었다. 원래는 밤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느질을 계속 했다. 핑체만 빼고^. 가방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웠다. 만드는 법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벌써 만들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오버로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것만 하면 손잡이 단계여서 금방 가방이 완성된다. 우리들은 쉬는 시간 마다 툼툼이 바느질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나는 이 수공예 작업을 하면서 집중력과 끈기, 인내심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들인데 이 작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채워진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해 보고 싶다.

식물과 별 그리고 기하학

— 해은

선긋기를 시작할 때 모두 다 같이 앉아서 선생님께서 종이를 주시면서 선긋기를 해보라고 하시며 종이를 나눠주셨다. 선긋기라고 하길래 별로 재미 없을 거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직선부터 그려보라고 하시길래 그려봤다. 쉬웠다. 그다음 디를 그려봤다. 삐뚤삐뚤 지멋대로 지저분하다. 그다음 세모로 된 줄긋기인데 너무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그다음은 동그라미 선긋기였다. 그건 세모보다 꽤 쉬웠다. 동글동글 말아 가는데 꼭 팔자를 쓰는 거 같았다. 재미 있었다. 선긋기를 하다가 1~10까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물어보신다. 별개 많이 나왔다. 나는 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주둥아리를 열 수가 없었다. 빨리 빨리 이렇게 얘기하며 웃으며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종이를 들고 비슷한 물건을 찾기 위해 나갔다. 이쪽저쪽 돌아다니며 그려본다고 하지만 도저히 똑같은 거는 커녕 비슷한 것도 없는 거 같았다. 거북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이건 자연이 아니라며 같이 가며 알려 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고 선생님께서 종이를 걸어 가신다 선긋기를 한 것도 다 걸어 가신다. 걷고 나니 쯤 아쉬웠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이라도 틀린 게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나는 선긋기를 시작할 때에도 그랬다. 너무 도도했던 거 같다. 이거하면 쉬울 거 같고 이거 하면 어려울 거 같고 그랬는데 다 반대였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니 쉽다가 어려우니 영 헷갈리고 이 글 쓰는데도 편하지가 않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만 줄 긋는 게 종이들이 너무 아까웠지만 즐거운 손놀림 이었다. 한 번 기회가 다시 있다면 쉬운 거라도 열심히 어려워도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다.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손이 자유로워 지는 거 같아서 좋았다.



리듬활동+ 스킨만들기

- 봉봉

리듬활동

둘째 날 후기 파트를 정할 때 리듬활동의 후기가 나의 몫으로 정해지자 무언가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의욕과 책임감이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솟아났다. 이름이 리듬활동이니 리듬에 맞춰 춤을 출 것 같았던 내 예상과는 달리 리듬활동은 무언가 간단하면서도 음악도 없었다. 그래도 리듬활동인데 리듬을 맞춰야 하는 음악이 입으로 내는 단순한 소리라니... 조금 이상하기도 했고, 이게 왜 리듬활동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리듬활동이란 걸 하다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박자에 맞춰서 막대를 던져야 활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듬감과 박자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또 조금이라도 틀리면 같이 막대를 주고 받는 파트너와 내가 다칠 것 같아서 박자와 나의 손에 모든 신경을 집중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막대기를 옆 사람과 앞사람에게 던지고 받고 하는 활동을 통해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배려심도 배운 것 같다. 그냥 솔직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리듬활동을 표현하자면 '입소리 막대던지기 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활동에는 어떤 것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텐데 그 목적에 잘 만큼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쉬운 것 같다. 다음엔 좀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나저나 리듬활동에 쓰였던 막대기 들은 모두 어디에 가있으려나... 잘 지내고 있지? 막대들아 ㅎㅎ

natural 스킨을 만들고 나서...

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세아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닌 활동이었던 자연 스킨 만들기! 협찬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친절하신 허브마을의 허브 화장품 만들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허브로 스킨을 만들 기회를 주셔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오르막길을 올라 허브 화장품 만드는 곳으로 향하고, 장미를 넣은 스킨을 생각보다 쉽게 완성하였다. 장미스킨은 장미향이 정말 많이 났는데 보습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셨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발라보았는데 향도 괜찮고 화장품 광고의 연예인의 피부처럼 촉촉해지는 느낌이었다. 다른 활동들도 물론 마음에 들었지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인지 더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어쨌든 재미있었던 여름캠프 짱이었다!

돌아오는 길

- 핑체

27일부터 29일 세아, 거북, 이리, 봉봉, 보리, 햄스터, 나, 해은, 이렇게 언니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2박3일 동안 캠프를 갔다. 29일 허브마을에서 집으로 오는 날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 동그랗게 앉아 느낀 점과,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서로 돌아가면서 말을 했다. 거의 마지막 날 같이 어울려서 못 놀고 따로따로 놀았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느낀 점을 말하고 나서 거북 선생님이 허브농장을 구경하고, 기념품을 사라고 5000원씩 주셨다. 우리들은 기념품 파는 곳으로 가서 기념품을 구경하면서 뭐 살까?? 뭐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구경을 하였다. 구경을 마치고 허브 마을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순간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냄새도 날아서 좋았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허브티를 마시면서 빵도 먹으면서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음식이 드디어 나왔다~음식을 본 순간 맛있어 보여서 입에서 군침이 살살 녹았다. 헤헤. 다 같이 맛있게 먹고 허브마을 차를 타고 동아 방송 예술 대학교 버스터미널로 갔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너무 덥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였다. 서울 가는 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가는 길에 모두들 다 지쳐서 누가 데리고 가도 모를 정도로 쓰러져서 잠을 잤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깐 벌써 서울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고 전철역으로 가서 전철을 타고 집을 갔는데..... 전부터 지쳐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이 피곤한 기색이었다. 2박3일 동안 재미있었고 안 해 봤던 걸 다 같이 모여서 해서 좋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고, 물놀이도 하고 밤 밤늦게까지 놀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한 번 캠프를 가고 싶다~ 다음 캠프 때도 기대할게요~~님님 감사하구 사랑해용♥ ☺





연재의 문을 열며

안녕하세요? 가온이에요. (최지승경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딱 요맘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른 몸 되기]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 코스였던 지리산 종주에 함께 하게 되면서 다른 몸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에게 여성주의가 '말과 글'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말과 글만큼이나 몸으로 배우는 여성주의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와 정에 2학기째 다니고 있고요, 공원으로 운동장으로 쏘다니고 싶은 엉덩이와 읽고 쓰고 싶은 손을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몸 일기인 동시에 나눔터 57~59호에 실린 키라의 [몸 이야기]에 대한 저의 길고 긴 댓글입니다. 세 번에 나누어 실을 이 글은 <알고 싶다면 하라: 체현>, <육망의 모방: 다른 몸의 관계성>, <몸·마음·혼의 통전과 치유>의 순서로 쓸 계획입니다. 왁자글 왁자글 많은 댓글과 몸 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바랍니다.

알고 싶다면 하라; 체현

◎ 상담소 후원회원 가온

배우는 데는 오직 한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직접 해 보는 것.

키라가 소개한 '체현' (體現, embodied body)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미 동서양의 많은 옛 성현들이 체현을 이야기하고 있던군요. 송나라 성리학자 장자는 "배움이 크게 이롭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다"라고 하였고, 주자는 "도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몸을 가지고 저 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학문하는 요체는 확실하게 마음을 닦고 절실하게 몸으로 느껴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데 있다"고 학문함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학자라고 하면 책상머리에 앉아 책만 파는 모습을 떠올렸었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이었나 봅니다. 그들도 배움이나 학문함이 이성이나 순수한 의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온 몸으로 배운다는 것**을 알았고, 도(道)를 알기 위해서는 **도 속으로 몸을 던져 들어가야 하며**, 학문하는 참된 자세는 마음과 몸으로 **느껴 깨닫는 것**이라고 머리를 넘어선 학문의 길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여성주의, 여성해방, 여성주의 힘 기르기(em-powerment), 다른 몸 되기는 '체득', 즉 몸으로 얻어야 하는 앎으로 다가왔고, 몸과 마음을 그 속에 던져 깨닫고 싶었습니다. 여성학(Women's studies)은 그 학문의 성립과 발전 자체가 여성의 (몸의) 삶을 이론화하고 언어화한 것이기에,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야말로 여성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태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강하였던 <여성학 방법론 I> 수업에서 조순경 선생님은 내가 읽고 들은 것이 단지 정보(information)일수도 있지만, 그것이 체화되면 변형(transformation)의 질료가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information': 나를 형성하는 것이(formation)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들어옵니다(in). 그러나 그것은 들어왔다가 한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잠기 머물렀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transformation': 그러나 그 정보가 나를 변화형성(trans-formation)시킬 때 그것은 진정 내 것이 됩니다. 장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의 기질이 변화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정보들이 널려있다고 해도 내 가슴을 울려서 나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변형(transformation)을 추동하는 앎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배우지 않는 것, 체득하여 체화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일전에 이를 씹씹하게 확인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까요, 글을 쓰다가 잠시 머리를 비우고 싶어 동네 뒷산, 아니 언덕에 올라

몸이야기 - 알고 싶다면 하라: 체현



▲ 영화 「테스프루프」(2007) 중에서

갔습니다. 서걱서걱 아카시아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부비고 있었고, 조용하고 푸릇한 어둠이 편안했습니다. 낮은 언덕 정상 벤치에 다다랐을 때 중학교 2,3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4명이 쪼그리고 앉아있더군요. 그들과 나는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그 중 한명이 “우리반 박지성 변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분명 그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 주제와는 완전 상관이 없는 엉뚱하고 돌발적인 것이었음이 나머지 세 명의 뻔한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른 아이는 박지성이라는 아이가 어떤 변태짓을 했는가 이야기하면서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를 성적 공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일까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지르면서 눈빛이 바뀌던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내려가는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과 거리가 조금 생기자 나는 벌렁거리는 심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야릇한 패배감이 몰려왔습니다. 나 혼자 너무 겁을 먹었던 것일까? 오판이고 오버했을까? 오판이 아니었다면 혼자서 이 밤에 뒷산에 가는 것은 역시 날 죽이쇼 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맞서거나 방어하는 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것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나는 몸을 읽고 기운을 읽기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많이 눈이 뜨여졌구나 하는 자각도 일어났습니다. 언어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인간의 의사소통 중 언어에 의존하는 것은 30%뿐이고, 의사소통의 70% 이상이 비언어적인 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는 신체의 표현, 기운과 무의식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석

심리학자 융 역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무의식이 먼저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지요. 내가 나의 몸과 에너지, 무의식, 내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탐구할수록 다른 사람의 기운과 에너지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춤이든, 운동이든, 명상이든, 연극이든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입니다. 무술 대련을 할 때 고수들이 서로의 자세에서 빈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과 같지요. 요가를 오래 한 사람이나 연극배우들이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이완되어 있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단박에 아는 것처럼요.

이번의 이 뒷동산 사건은 ‘몸 기운 읽기’라는 경험도 개념도 접하지 못했던 시절 겪었던 사건을 기억 속에서 불러내었습니다. 2004년 여름 이맘 때 즈음 같습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사방사방한 치마와 하늘거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집으로 오던 길, 키 170센티에 70킬로 즈음 나갈 것 같은 20대 초반의 남자가 내가 때문에 열쇠를 쫓는 순간 치마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그 전까지 내 주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가해자가 골목을 따라 오는 김새도 전혀 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넘어지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고 뛰어 쫓아가거나 한판 몸싸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본적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이어트를 위해서였습니다. (키라의 논문에서 인터뷰한 여자 복싱 챔피언 선수가 자기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권투를 시작했다고 해서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요!) 몇 번의 성폭력 사건들, 똥똥해서 차였다고 자학했던 관계들, 여성주의 한다는 한 선배가 던진 오지랖 넓은 비난에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무력한 몸, 똥똥한 살덩이 같은 몸, 참고 참기만 하는 몸이 그때 내가 느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학교도 휴학하고 고향 부산에서 낙동강의 배일 듯한 바람을 맞으며 매일 뛰고 걷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를 지우고자 길에, 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0kg과 헤어지고, 나는 여성주의의 오도 쳐다보지 않기로 했지요.

그런데 한번 움직임의 쾌락을 알게 된 몸은 산을 오르고, 길을 달리던 또 다른 나의 몸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자꾸

1) 박희병 편역, 1998, 『선인들의 공부법』, 창작과비평사

2) 허은주, 2006, 「여성 격투가의 ‘몸-체험’과 여성 주체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M.존슨, 『마음 속의 몸 - 의미 · 상상력 · 이성의 신체적 근거』, 노양진 옮김, 2000, 철학과 현실사

움직이도록 들쭉셨습니다. 산이 있으면 가보고 싶고, 길이 있으면 뛰고 싶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할 때는 매일매일 등산을 했습니다.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백주 병’이던 내가 새벽 수영을 하면서, 어느덧 ‘내가 전생에 태평양의 돌고래가 아니었을까’ 수영하면서 웃는 미친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드러나는 그 ‘옷(服)’이라고 할 수 없는 ‘수영복’이라는 것을 입고 수영장 안으로, 타인의 시선에 내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나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 내 몸에 대해 여전히 미움과 고까움이 남아있지만, 산을 걸을 때, 땀 때, 수영할 때, 나는 치타같이, 돌고래같이 움직이고 싶은 그 펄떡펄떡하는 생동감과 욕망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성주의 책에서 “가부장제의 시선을 벗어나 당신의 몸을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백만번 읽어도 되지 않던 그것이 지리산의 그 길에서 알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내 튼튼한 종아리, 완소야, 고마워.”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무슨 대단한 몸 훈련이나 한 듯이

이야기 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확실히 저는 예전의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달라지겠지요. 한 가지 일상의 변화를 말하자면, 이제는 공간을 읽는다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나 밤에 걸을 때 온 몸의 세포를 열고 공간과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집중합니다. ‘몸은 우리를 둘러싼 전체적인 시공간과의 접촉점’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나의 이 변화, 다른 몸 되기는 오직 ‘함’으로서만 내 것이 되었고, 도전하고 싶은 몸 움직임의 종목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춤과 운동, 걷기와 산, 그런 생각만으로도 아드레날린이 솟습니다. 사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지요!

‘알기 위해서는 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움은 체현되는 것임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살아봐야 한다고 깨달았을 때, 여러 선배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번 글을 마칩니다. ☺

“진정한 해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을 때,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해 철저히 참여했을 때 비로서 가능한 법”

융 (Carl Gustav Jung, 1875~1961),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질문을 살아보십시오.”

릴케 (Rainer Maria Rilke, 1875~1926), 독일의 시인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대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것을 하라”

켄 윌버 (Ken Wilber, 1949~), 미국의 통합연구·초개인(transpersonal)연구자

“오로지 삶만이 교육이다.
살아보고 맛보고 소화시킴으로써 마침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비노바 바베 (1895~1982), 인도의 사회개혁가·정신적 지도자



다음 연재 글의 예고

연재의 두 번째 글은 〈욕망의 모방: 다른 몸의 관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욕망도 모방되는 것이지요. 저 멀리의 욕망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욕망을 따라합니다. 내가 따라하고 있는 욕망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자아는 관계성을 띠기 때문이죠. 내 안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욕망을 따라하고 있는 걸

까요? 모방이라는 단어는 비자율적으로 따라한다는 부정적 느낌을 먼저 가져오지만,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모방하는 것인가 자각하게 되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 글의 키워드는 ‘욕망, 따라하기, 주위 사람들, 행복, 권력’입니다.

오매님과 박지나님의 코멘트와 응원,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interviewee_ 카노스 석주
◎ interviewer_ 성문화운동팀 키라

에이즈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등에 업은 신자유주의와의 한 판 승부,
에이즈 인권 운동!
그 한복판의 카노스를 만나다

na
눔터
edutainment



카노스는 어떤 곳인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고민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에이즈라는 병이 꾸준히 관리되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단체를 만들게 되었지요. 지금은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에이즈 예방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이즈 운동의 역사를 개괄한다면?



한국에서 에이즈 운동이 시작된지는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에이즈 운동을 열심히 했던 곳은 동성애자인권단체였지요. 그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 인해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인권단체에서는 에이즈가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에이즈 문제가 처음으로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조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커뮤니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감염인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카노스는 그런 가운데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나누리 플러스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그 단체는, 백

혈병 의약품 투쟁하던 친구들이 에이즈 의약품 투쟁을 접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만든 단체입니다. 나누리 플러스가 생기면서 카노스에서는 직접적인 연대 단체가 생긴 셈입니다.



카노스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좀 더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에이즈예방법 대응운동이었어요. 감염인이 감염인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데, 이때 거의 처음으로 그런 기회를 낸 거죠. 그리고 법 관련 운동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인권 증언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상담소의 생존자 말하기 대회와 비슷한 걸까요? 피해를 증언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네요. 피해나 차별의 낙인에 반대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사의 이름은 '말할게 있수다'였어요. 말 그래도 대회까지는 아니고 수다 형식으로 말을 터뜨리자는 거였죠. 네 명 정도 증언을 했고 관객은 60명 정도? 처음으로 하는 행사니까 언론사 기자도 많이 오고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 행사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었나요? 더 나누고 싶은 점이라든지?

증언한다는 것, 피해를 드러낸다는 것의 안 좋은 점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 놓고 그냥 끝나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인권 증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운동이나 액션, 변화와 연결되는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하죠. 이걸 나의 경험과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기획이 필요해요. '그래, 너 참 불쌍해' 이런 식으로 끝나는 증언은 오히려 운동에 해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약품 접근권 투쟁이 올 상반기에도 뜨거웠던 걸로 아는데 소개부탁해요**


 의약품은 공공재예요. 약이 필요한 사람이 약을 복용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죠. 기본권이고 생명권입니다. 옷이나 비싼 음식처럼 나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제약회사에게 이윤을 주는 '특허'라는 제도가 버티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고, 약은 하나의 물건, 즉 상품이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약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죽음에까지 내몰려요. 특허라는 제도 안에서 인간의 생명은 돈을 기준으로 서열화됩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4천만 명인데, 그 중 약을 먹는 환자는 6백만 명뿐인 현실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푸지온'이라는 약이 한국에 수입되었지만, 제약회사가 싼 값에 팔수는 없다고 하며 현재까지 시중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의약품 투쟁에 있어 카노스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는요?**


 '푸지온'을 만든 곳이 미국의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입한 제약회사에게 강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제약회사의 특허와 상관없이 약을 제조하는 권리를 양도받는 '강제실시'라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기존 특허비의 3%만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강제실시를 주장하는 '푸지온'이라는 약은 미국 사회보험 펀드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제약회사에서 특허권을 채어 간 상태예요. 공공재여야 하는 약을 고가로 팔고 있는 거죠. 이

런 면에서 보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사실 거대 제약회사 자본의 횡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아, 정말 무시무시하군요-_-;;)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하길 바라는 활동이 있다면요?**

 성에 대한 사회적 터부에 반대한다는 면에서 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이 은밀하고 더럽거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은 에이즈가 '성'과 관련해서 가장 공격받는 부분을 만들어내죠. 성폭력도 암울하고 더럽고 무서운 어떤 종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이야기하고 운동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고민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 한 것 같고요 ^^;;

 **카노스의 에이즈 인권운동의 슬로건, 미래의 전망을 간단히 밝혀주신다면?**

 에이즈 운동은 감염인 인권 증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슬로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이즈 운동을 할수록, '에이즈를 보면 이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가 다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의 감염인 통제와 관리, 빈곤 문제, 성에 대한 터부, 신자유주의와 거대 자본의 횡포, 동성애 혐오, 질병에 대한 터부 등...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문제 해결 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척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큰 허상 중 하나가 에이즈에 대한 혐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거대한 싸움을 생각하면 암울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이 거대한 싸움의 중심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도 나고요. ☺

'감사합니다. 카노스 홈페이지
www.kanos.org'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에이즈 인권 운동! 그 한복판의 카노스를 만나다



Healing Cinema

◎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한때 엄청나게 영화를 봤던 시기를 제외하고 급 침체기이지만 그래도 영화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한 영화를 보면 감독은 고사하고 배우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영화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화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영화치료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영화치료 집단프로그램에 내담자로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동글게 둘러앉아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고, 주변 관客的 이야기를 하고, 논쟁이 이어지고, 그 논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해하고, 영화 속 배우들을 빌어 내 이야기를 했다. 보통의 집단상담과는 또 다른 역동과 상담자의 솔직함을 느끼면서 나는 영화치료의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성폭력피해여성, 성폭력가해남성들과 함께 영화보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을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민이다.

영화치료를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영화치료란?

문자에서 영상으로 치료수단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되었다. 영화치료(cinematherapy)는 좁게는 영화를 감상하고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며 넓게는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치료적 기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영화를 보는 것은 단지 스토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화에 관한 글쓰기는 읽는 이에게 영화에 관한 특별한 것을 상기시킨다. 예, 특별한 장면, 특별한 대사, 특별한 카메라 움직임.

그럼으로써 영화를 다시 보고 다시 느끼게 한다. 예, 재해석. 이러한 과정은 영화 치료자로서, 영화를 깊이 그려면서도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하고 그러한 느낌을 영화치료에 반영할 수 있게한다.


영화치료의 장점?

치료계획에 도움을 준다. 희망과 용기를 제공한다. 문제를 재구조화 시킨다.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내적인 자원을 파악하고 강화시킨다. 정서를 증대시킨다. 의사소통을 증대시킨다. 내담자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화치료자가 되고 싶지만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영화 팬이 아니라고 해서 영화치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영화치료는 영화를 활용해 심리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지, 영화 비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를 사

용하는 목적은 치료를 증대시키기 위함이지 영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료자들은 치료 목표에 대한 관점을 잃고 영화에 너무 폭 빠져서는 안된다. 치료자들은 단순히 할당되거나 추천된 영화이므로, 내담자의 해석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화에 대한 토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

영화는 제작 당시 사회의 일상생활, 대중적 사고방식과 정서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는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존재한다. 또한 이미 그 생산과 수용에 있어 경험하는 담론을 담은 것이기에 삶의 양식을 재생산하는 하나의 기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맥락속에서 만들어지고 읽히는 영화는 한 시대나 사회의 망탈리테, 지배적 이데올로기, 또는 소수자들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재현되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처럼 거창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영화에서는 다양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유독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설정이 있고, 배경이 있는 것일 것이다. 나는 영화가 사람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세계를 열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만난 낯선 사람들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 가장 유용하고, 손쉽게 활용하는 것이 영화 아니던가? 치유를 위한 영화공부 Healing Cinema! 

*2008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KOSIC)가 창립되면서 영화치료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영화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 www.cinematheraphy.kr](http://www.cinematheraphy.kr)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영상치료센터 사이는 영화치료 집단상담, 영화치료자가 되기 위한 과정, 영화목록 등의 최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참고: www.healingcinema.co.kr](http://www.healingcinema.co.kr)

나눔터
edutainment

소모임 생각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8년 나눔터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소모임 '토닥'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아래에서 함께해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를 읽고

◎ 소모임 〈토닥〉 회원 토리


토닥의 질적연구 공부하기 세 번째 시간. 이번 세미나는 정희진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토닥이들 모두 '전에 읽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며 책을 읽은 첫 느낌을 이야기했다. 한 번 혹은 몇 번을 읽었지만 전혀 다른 책 같다고도 했다. 아마도 이 책이 출판된 2000년도와 현재의 토닥이들의 삶이 변화했다는 것과, 8년여의 시간동안 각자 접해온 여성폭력 사례들이 책을 읽으며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이 논문(이 책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글이다)을 쓰며 몇 번을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는 저자의 글이 없었다면, 아내폭력의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저자의 시선이 매우 냉정하다거나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에만 차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저자는 아내(증언자)와 남편(가해자)의 입장을 함께 기록하고, 이 두 개의 시선과 그 시선을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가족이데올로기를 논한다. 독자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아내폭력의 일상성과 잔인함을 목격하게 된다. 꼼꼼한 참고문헌과 저자의 해석은 '네가 지금 읽어내는 그 느낌들이 맞아'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듯하다. 가족 내 성별 역할로 유지되는 가족 제도가 언제든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토닥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나의 일상과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 증언자인 아내들의 입장을 잘 담아내는 글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도 했다. 우리가 그녀들의 입장에 완전히 설 수 있을까. 입장의 동일시를 아무리 가져와도, 결국 저마다의 경험과 역사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깨닫고 성찰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존자들과 거리두기와 공감은 늘 힘들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스터디를 한 다음 날, 아내폭력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피해자와 무죄가 선고된 남편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기 위해 아내를 방에 감금했다.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는 방으로 난 베란다로 도망쳤지만 떨어져 숨지고 말았다. 법원에서 감금치사로 기소된 남편은 감금죄만이 인정되었고 치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인의 추락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항거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판결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아내폭력 가해자의 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가해자의 항변과 가족이데올로기가 우선에 놓인다. 남편의 폭력 행동은 가정의 규율을 지키려는 의무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지만, 여성의 대응, 탈출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패씸죄가 된다. 추측, 아니 장담하건데, 무죄를 선고받은 그 남편의 아내폭력은 단 보름의 감금 동안에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 입장에서 폭력은 '아내의 역할'을 훈계하고 통솔하기 위한 남편의 의무이자 역할이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만 보면 그녀가 마치 '자살'이라도 한양 나오지만, 그 여성의 베란다로 탈출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의지였을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미세하거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상의 정치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상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내폭력 피해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고민의 주제로 다가왔다. 성별로 나뉜 권력관계와 차별이 있는 한 그것을 유지시키는 도구로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뭔다! 상담소



반차별공동행동 - 반차별 상상더하기

작년 차별금지법 법무부안에 문제제기하며 모였던 반차별공동행동이 이제 제법 그 모양새를 갖추고 '새로운 연대' 활동의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올해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상상더하기>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 마당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운동 이슈와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꾀하는, 즉 '연대'의 내용을 채워가는 이야기/토론 공간입니다.

- 6/11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운동의 전망> @ 대학로 노들야학
- 8/26 반차별 상상더하기 <피해/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형법개정 관련 워크숍

법무부에서는 오는 2010년 대폭적인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랜 논쟁을 거쳐 범죄화해 온 여성인권법들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상담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성전화 등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긴급 대응모임을 꾸려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형법개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 6/23 법무부 형법개정안 관련 긴급 대응 모임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 6/30 법무부 형법개정안 관련 워크숍 계획회의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 7/30 현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의 흐름과 우리의 운동방향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 8/14 '성적자기결정권'의 개념 논쟁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년도 하반기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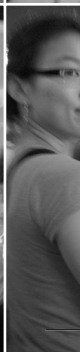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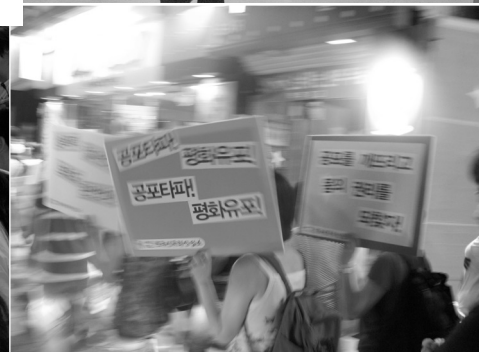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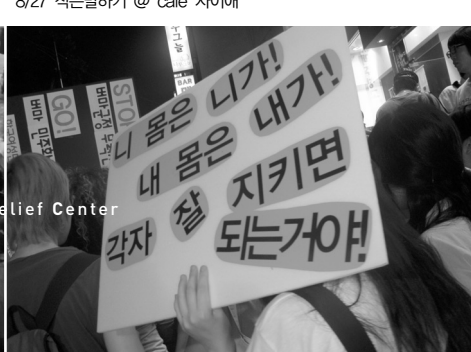
상반기에 진행했던 비전 워크숍의 성과를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담소의 미션과 비전을 점검하고 향후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미래전망 워크숍을 계속합니다. 그간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안건들을 주제로 하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근활동가들은 열린 토론을 통해 상담소의 미래를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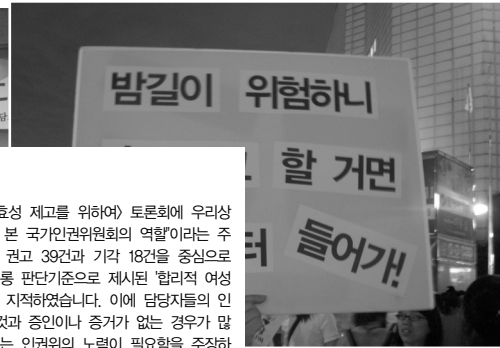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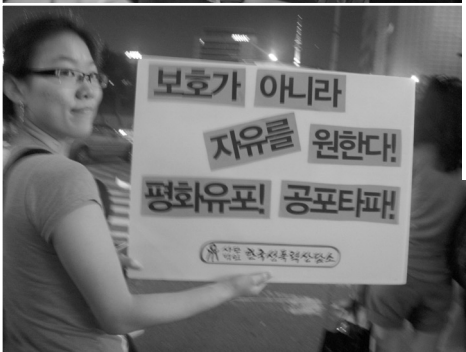
- 7/22 생존자와 만나기, 어떻게?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8/19 급진적·독보적 이슈, 어떻게 만들고 확산할까?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작은말하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작은말하기', 매달 한정역 근처 카페 '사이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월에는 5월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작은말하기'가 열려 올해만 벌써 여덟 번의 작은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말하기 참여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7월부터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cafe.daum.net/small-but-big-talk에 들러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6/25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 7/30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 8/13 기획 작은말하기 @ 무대륙
- 8/27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6.24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업무 이관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성희롱 시정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토론회에 우리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총 391건의 인권 진정사례 중 권고 392건과 기각 18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진정사건의 인권 결정을 비판하고 성희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합리적 여성 관점이 결국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 및 더욱 정교한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성희롱의 특성 상 부수적인 정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진실을 밝혀내려는 인권위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7.1 하반기 계획회의, 6/19 상반기 평가회의

2008년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는 상근활동가 회의가 지난 6월 19일과 7월 1일에 열렸습니다. 상반기 평가회의에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활동을 평가해 보았고요, 이어 하반기 계획회의에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면서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갈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되돌아보고 내다보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회의와 계획회의를 통해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7.4 달빛시위 후기

지난 7월 4일에 5회 달빛 시위대가 뒀습니다. 이름하여 <달타령 : 달빛 타고 노는 영화!>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반대하는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달빛시위가 벌써 5회째입니다. 피해자를 비난 말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노출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 이런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호들을 우르르 모인 여자들이 함께 외칠 수 있었던 멋진 자리였습니다!

7.14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토론회

지난 7월 14일,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토론회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신 조운숙 대구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구학교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특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 학교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여러명으로 밝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도 된 사건이 일어나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 상담소도 '학교성폭력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문 요약본은 12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8.11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11일 오전10시 최영희 국회의원과실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은 어린이 피해생존자 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에서 단 1명의 어린이만 피해를 인정받은 판결, 2004년 말양에서 발생한 집단청소년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겪은 여러가지 2차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8.20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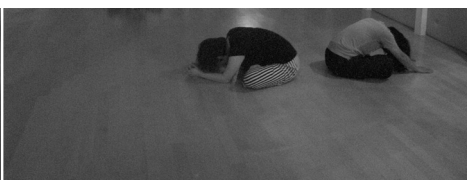
지난 8월 20일, 청소년/녀 &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장애여성성감과의 만남에 이어 올해로는 두 번째로 준비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었습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성'을 운동의 이슈와 쟁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서로의 운동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열림터 활동 혹은 상담 활동이 10대 (여성)의 성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한 활동가들의 우려와 고민을 드러내고, 그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제안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8.23 릴레이시민토론 1차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드러내기+움직이기+변화하기"

8월 23일, 2008년 릴레이 시민토론의 첫 주자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드러내기+움직이기+변화하기"가 열렸습니다. 1) 과연 어떻게 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드러내기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또 드러난 사건들은 어디까지 해결이 되어야 성공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3) 어린이청소년성폭력은 줄여줄 수 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드러내기, 움직이기, 변화하기 에 해당하는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팀과 함께 토론을 하고 글을 쓴 토론회가 간단한 발제를 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교육 강사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성교육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8.26 반차별 상상다하기

지난 8월 26일 반차별 상상다하기 그 두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야기 거리는 <피해/차별을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로, 특별한 형식없이 열린 수다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견고한 사회에 웅크리고있는 커밍아웃이지만 때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만 그치게되는 공감 배제로 시작된 논의는 우리의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주된 쟁점은 <낯선 피해의 언어를 잠식해버리는 기존 사회의 편견과 단단한 해석 체계에 대한 공감과 울분>, <잘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 들릴 수 있도록 세팅(기획)을 잘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이진 논 의, 실제 활동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지향의 시도로 해본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장애여성성감, 한국성폭력상담소, 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등에서 적극 이야기해주셨지요) 등이었습니다. 다음 상상다하기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 review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 릴레이시민토론 기획팀 아생초



8월 23일, 2008년 릴레이 시민토론의 첫 주자인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드러내기+움직이기+변화하기”가 열렸다. 1) 과연 어떻게 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을지, 지금 현실에서 드러내기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또 드러난 사건들은 어디까지 해결이 되어야 성공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3) 어린이청소년성폭력은 줄어들 수 있는지, 그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드러내기, 움직이기, 변화하기에 해당하는 이 세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기획팀과 함께 토론을 하고 글을 쓴 토론엽이가 간단한 발제를 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교육 강사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의견개진을 더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래서인가? 성교육에 관한 논의가 많이 나왔으며, 앞으로 성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나에게 하나의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0년 초에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성교육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양해져있다.

하지만, 몇몇 학교의 이야기가 아닐까싶다. 여전히 성교육이라 하면, 비디오 시청과, 생리주기 따지는 더 나아가 피임 종류까지만! 하는 일방통행 수업을 하는 보수적

인 학교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행여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하였다 하여도, 학생의 받아 드리는 속도는 어떠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교육이 “성폭력이 무엇인가?”였다. 몇 가지 사례를 VTR을 통해 보고 한 시간을 마무리 지은 것이 전부였다. VTR내용은 흔히 알고 있는, 심부름 갔다 오는 길에 당하는 내용, 아는 오빠, 이웃주민에게 당하는 내용이 전부였고 이런 사건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과정에 더 많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내가 겪은 일도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학창시절 동안 성교육 중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선생님(강사)은 없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신고 연락처도 몰랐으니.

비록 몇 년 전의 이야기 할 지라고, 지금의 수업 방식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예방 중심의 수업을 진행 하였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걸 보고, 듣고 하여 많은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정작 사건이 발생 하였다면 아이들은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성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성폭력예방중심의 일방통행의 수업보다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들을 학생과 선생님(강사)이 같이 찾아 가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다.

강자가 약자를,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런 권력의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더욱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더욱 논의 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아동성폭력에 대한 숙제가 해결될 거란 욕심과 바람은 너무 컸던 것일까? 해결된 숙제보다 더욱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많아졌지만, 토론회를 통해 얻은 숙제들이 또 다른 해결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

2008년 두 번째 섹슈얼리티 쟁점포럼

청소년/년 & (성적)자기결정권

◎ 성문화운동팀 키라

지난 8월 20일, 청소년/년 &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장애여성공감과의 만남에 이어 올해로는 두 번째로 준비된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이었지요. 이번에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성'을 운동의 이슈와 쟁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서로의 운동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번 자리 역시 열림터 활동 혹은 상담 활동이 10대 (여성의) 성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떨쳐내기 어려운) 활동가들의 우려와 고민을 드러내고, 그에 대해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솔직한 의견이나 제안을 듣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역시 예상치 못한 도움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지요 ^^

'여성-청소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하신 난다(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촛불시위에서 연행됐던 경험을 소개해주셨어요. 자신이 연행되던 장면이 실린 신문의 카피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여중생'이었지만, 본인은 사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학생도 아니었다는 거죠.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활동도 쉽게 보호주의로 해석되는 사회적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같은 단체 공현님은 청소년 내에 존재하는 성별 권력관계가 청소년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덧씌워져있는 '성적 터부'의 강력함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산(여성주의 상담팀)은 '십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말하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보호주의'가 십대여성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십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기 어려운 현실, 즉 성의 (순쉬운) 매개 가능성, 10대들에게 빈곤한 사회적 자원, 보호자를 통하지 않고 사회적 발언권을 얻기 힘든 조건에 대해 짚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10대 여성과 만

났을 때 생기는 특수성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면서 보았던 10대 여성들의 힘과 자신감으로 새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구성의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에서 활동하는 거북은, 열림터라는 보호시설에서 겪는 생활 속 인권의 고민을 공유하며, 일상에서 맞이하는 애매한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을 시도하였지요. 모둠 토론 자리에서는 '제도화된 쉼터'라는 한계 내에서 '생활 규칙과 인권'을 이야기하기 어려움 점을 짚으면서, 여성주의 쉼터 모델 발굴의 향후 논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기-나이주의와 경험의 차이', '청소년 성폭력'을 주제로 모둠 토론이 이어졌고, '성'이 위험한 사회에서 청소년 성적 권리 운동의 슬로건/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졌지요.

섹슈얼리티 쟁점포럼은 다른 운동 영역이나 이슈들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만큼, 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 사용하는 언어들,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랄까요? ^^

청소년인권운동의 '인권'이 반성폭력운동의 피해자 '인권'이라는 언어와 같고도 다른 점에 대해, 그리고 청소년의 주체성을 이야기할 때의 '동의'와 반성폭력운동에서 이야기해온 '거부/동의'라는 언어와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해 생각할 앞으로의 과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하지 않게, 하지만 긴장을 놓지 않는 '성문화운동'에 대한 그림을 8월에 만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 번 그려봅니다. ☺

* 발제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를 열다

◎ 나눔터 편집팀

토론 회 순 서

- ◆ 기조 발언 『성폭력 2차 피해, 대책을 찾아서』 _ 강지원(변호사)
- ◆ 주제 발표
 - 성폭력 2차 피해와 피해생존자의 권리 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아동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국가 상대 손해소의 과제 _ 조인섭(변호사)
 -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판단기준 _ 이경환(군법무관,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 ◆ 지정 토론
 - 국가상대 손해소 원고인의 입장에서 _ 곽00, 이00(피해아동 부모)
 - 성폭력 2차 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_ 이호중(서강대 법학과)
 - 피해자 권리로서의 손해배상 청구 _ 이유정(인하대 법학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11일 오전10시 최영희 국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은 어린이 피해생존자 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소송에서 단 1명의 어린이만 피해를 인정받은 판결,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청소년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여러가지 2차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최영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해(2차피해)를 겪는지, 이런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열심히 논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현장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유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상담소의 법률자문위원이신 조인섭 변호사와 이경환 군법무관이 앞에서 언급한 2가지

판결을 분석하고 2차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어린이 피해생존자의 어머니 2분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간 겪은 어려움과 사회에 바라는 제언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호중교수의 2차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과 이유정교수의 피해자 권리로서 국가상대손해소의 의미를 짚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폭력 2차피해를 근절하고, 생존자가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공감대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폭력 2차피해는 사회의 인식과 통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문은 자료집으로 제작, 지난 1년동안 우리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400여 법조인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

법률봉사연수를 마치며

◎ 사법연수원 39기 옥창의

2008년 6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시작했던 2주간의 법률봉사를 시작했다. 낯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좁은 사무실, 습기 가득한 지하실, 소장님을 제외하곤 웬지 남성에게 적대적일 것 같은 활동가분들의 인상(여성주의 활동가들을 바라보는 나의 편견일테지만)에 조금은 위축됐던 기억이 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여러 성폭력 피해사례들을 접했고,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들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 남성으로서, 그리고 멀지않은 미래에 법조인이 될 사람으로서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생각보다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 일상화 되어 있어 충격적이었다. 자유롭게 주변인에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누벼야 할 거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야 할 직장과, 학교에서,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러한 고통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감수성이나, 심리적 치료정도에 따라 어렵지 않게 극복하기도 하고, 50-60대가 되어서도 지속되기도 하였다.

7월 4일에는 달빛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봤던 공연들, 사람들의 표정들은 꽤 감동적이었다. 장애인분들께서 했던 공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보았던 여성분들의 다양한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난 여자가 담배 피는 모습을 처음 보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 때까지 여자가 담배 피는 모습은 거의 못보다 시피하며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담배는 남자만 피는 것이고 여자는 혹시 피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혼자 숨어서 피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닌 '낯섦'이었다는 생각이다.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여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게 되

는 일이 내게는 드문 일이 아닌 것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익숙한 일이 되었다. 달빛시위에서 보았던 아지는 내게 낯선 여성들의 모습도 조금씩 내게 익숙한 모습이 되어 갔다. 길거리 행진과정에서 모두 다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표정들에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였다.

대학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에도 여성총학생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 내가 받았던 솔직한 인상은 사소한 것에 시비를 걸고, 남성에게 항상 적대적이며, 범죄인 다루듯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단체에 대해 갖고 있는 이유 없는 거부감이 그 때부터 내게도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했던 내가 여성단체의 조직 내에서 2주간 법률봉사를 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며 사회의 보통인임을 자처하는 내게 여성단체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남성 중심적 사상의 소극적 가담자 혹은 방조자로서 이익을 얻으며 살았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 대법원의 '최협의설'에 대해 얘기하는 기회에 활동가분이 말씀해주신, 객관적 합리성으로 위장한 채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용기에 지지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 또한 내가 그러했듯이 여성주의 운동이 다른 남성, 그리고 여성의 지지를 폭넓게 얻는 날을 기대해 본다. ☺

*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있었던 2008년 법률봉사연수에는 사법연수원 39기 김은형, 박은진, 오다현, 옥창의, 이재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성폭력을 위한 법 지원 활동, 앞으로 많은 활약해주세요!

사업 review

지난 7월 4일에 5회 달빛 시위대가 났습니다. 이름하여,

〈달·타·령 : 달빛 타고 노는 영희!〉

◎ 성문화운동팀 키라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는 달빛 시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여 여성들의 목소리로 권리를 외쳐온 행사입니다. 보호받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쟁취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반성폭력 '시위'로서 5년의 역사를 가진 행사이죠.

〈달·타·령 : 달빛 타고 노는 영희!〉라는 이번 슬로건은 다음과 같이 기획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영희는 '청결' '순수' '착한 아이'와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되죠. 그런 '여성다움'의 이미지는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해'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한 여성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통념을 만들어내고, 이는 곧 '늦게 집에 들어간, 술을 먹은 여자가 잘못된거지' '정숙한 여자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거야'라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번 달빛 시위에 등장한 우리의 영희는 착하고 단정한 소녀가 아닙니다. 반대로 분명한 자기 주장이 있고,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하며 '여성다움'의 규범을 벗어나는 여성이죠, 이 영희는 밤길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며,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넘어서는 쏘~녀인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5회 달빛 시위의 슬로건입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인사동 남인사 마당 곳곳에 전시물과 부스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객석 뒤편에는 〈야한 옷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이라는 속시원하게 큰 현수막을 걸었지요. 페이스 페인팅, 촛불시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은 성명서 전시, 성폭력에 대한 반격시나리오를 적은 사례 전시, 성폭력 통념을 비틀고 꼬집는 만평전을 즐길 수 있는 사전 행사였습니다.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태국 방콕의 committee for Asian Women의 연대 메시지를 함께 낭독하며 감동을 읊미하였고요, 우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4부 합창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매 활동가의 개사 실력이 돋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반여성 정책에 대한 비판'을 속시원히 내지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연수 중인

사범연수원생들이 가사를 넘겨주는 센스를 발휘하셨습니다^^) 이어진 장애여성공감의 퍼포먼스 역시 격렬하고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빛을 위한 프로젝트 밴드, 일명 '분위기 봐서'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통기타와 쥘레, 그리고 환상적 보이스! 다들 낮을 놓았다고~ 바로 이어서 행진 때에 함께 부를 노래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개사한 노래는 요즘 뜨는 '생각대로 T, 되고 송'이었습니다. (^;) 바로 연결된 시간은 고재경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맛배기였죠. 넓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올인(all-in)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따라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졌습니다~!!

남인사마당에서 준비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발랄함과, 우리의 비장함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5회 달빛 시위의 큰 깃발 아래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진은 인사동 남인사마당 출발→을지로를 지나→명동 중앙 거리를 통과→명동 성당에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진에서 우리가 외친 구호들은 이런 것이었죠!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타겟이 되는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성별제도와 가부장제를 변화시키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배제하고 있는 규범이 존속하는 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와 모의, 그리고 이미 우리들 사이에 와 있는 해방구의 즐거움을 나눌 여성들이 함께 만들, 그 짜릿한 여름밤의 도발을 말이죠. ☺



2008 CONCERT

여악여락

2004 여악여락 콘서트의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열정과 환희를 함께 나누는 그녀들의 뜨거운 무대!
2008 여악여락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이슬〉로 전국을 뜨겁게 한 국민가수 **양희은**
관객의 시선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주인공 **한영애**
톡톡 튀는 환상과 날카로운 현실의 변주를 보여주는 **자우림**
파워풀한 가창력을 선보이는 아름다운 락커 **서문탁**
넘치는 끼,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신인밴드 **뷰렛**

그리고 **여러분**이
2008년 여악여락의 주인공입니다.

일시 2008년 8월 27일 (토) 저녁 7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홈페이지 www.yeorock.com
블로그 blog.naver.com/yeorock2008

주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학생회
후원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MBC SBS KBS

티켓예매 CJ티켓 www.cjmall.com (1577-8888)
공연문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2 yeorock2008@naver.com

* 여악여락은 '여성이 음악을 하니 여성이 즐거우라'의 의미로, 올해 3회를 맞는 여성음악축제입니다.
* 본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화 10년, 인권 당사자에게 길을 묻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처음 포함하였던 법률(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 문제를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이슈로 여겨질만큼 공론화된 시점에 와 있죠. 이런 대중화의 성과를 짚어보고 지난 10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토론할 쟁점, 새롭게 발굴되어야 할 담론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성희롱의 법적 판단 기준, 성희롱의 개념(‘성적’인 것의 의미, 성차별과의 차이나 연관성),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평가나 제언, 여성운동에서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운동에 대한 전략 등 중요하게 짚어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죠. 상담소에서는 앞으로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운동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을 이슈화 했던 여성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 직접 인권 당사자들에게 그 길을 묻는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획단이 꾸려져서 연구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요.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제기의 목적 재검토, 실제 성희롱 관련 경험의 양상,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담론과 정책 제언〉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더운 여름, 상담소에서 열리는 기획단 회의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구 조사의 성과를 토론회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직장내 성희롱 대응 운동에 대한 전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니 일정을 미리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08년 10월 15일 오후 1시~5시(예정)
- 장소 : 만해 NGO 교육센터 대교육장

사업 preview _ 2008 여악여락 콘서트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화 10년

..... 들고나기 인사



안식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며

절대적 의존으로 남겨진 생명과
부대꼈던 기억이 남긴 것

◎ 참여기획팀 지선

안식년 휴가를 맞으며 들뜨고 설레었던 마음, 홀로 있음과 씬에 대한 깊은 명상(?)을 끄적거렸던 일(나눔터 54호 53쪽을 참고하세요~)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숨가쁘게 살아가게 했던가? 여성연합, 유한김벌리, 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1년 과정의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 그리고 거기서 느낀 배움의 희열,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해 새롭게 떠오른, 혹은 한층 깊어진 갈등과 고민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임신, 출산, 육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을 살아왔다고 단언할 수 없는 나이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큰 획을 그었음을 인정해야겠다. '나'라는 인간이 가진 삶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두려움, 활동가로서의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였으니 큰 획이라 하기에 어색함이 없을 듯. 다만, 그 '나름의 정리'가 다름 아닌 내 배 속에서 함께 살다가 분리되어 세상으로 나온 존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게 많다는 게 의외일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에게 엄청난 경험을 갖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출산 전에는, 적어도 임신기간까지는 출산이 여성 개인의 삶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다.)

음... 2년이라는 시간동안 느꼈던 수많은 것들 중 최근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타자와의 평화로

운 관계' 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인간에게 '자율성'이란, 혹은 소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로서 땅 위에 당당히 발을 딛고 서 있는 시기란 전 인생에 걸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체가 자유로워야 하고(의식주를 혼자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적인 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노, 불안 등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 경제적인 자립 등 갖춰져야 할 여건이 너무나 많다. 소위 '타인과 나의 경계를 구분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독립성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타인과의 거리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인간 삶을 통해 얼마나 짧은 기간인가. 경제력 하나만 생각해봐도 적어도 20대는 되어야 자립의 여건이 주어지고, 개개인에 따라 그 경제력이 사라지는 시기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거리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 지식, 건강을 갖고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사이를 불규칙하게 여러 차례 이동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율성을 보유한 소수의 사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 자율성을 갖춘 소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약자'들을 보호, 방지,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여기선 육아에 대한 이야기만 더 해보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물론 육아를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상황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다) 소위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고 기르는 일을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과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한 이 부분은 가족,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여성'이 해야 할 역할로 일임하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 국가, 기업은 여성의 희생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진, 여성들에게 육아와 돌봄을 맡겨버리는 현실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는 '자율성 아닌 자율성'을 갖춘 사람들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내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가 그 정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세상 속에 홀로 놓여있는 것에 대한 공황에 가까운 불안감, 울부짖음... 그것은 정말이지 자신의 전 존재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절규일 수도 있겠다(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정리할 여유가 있던 최근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전까지는 그저 둘 간의 끝 모를 사투였다고 해두자). 인간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 시기에는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사랑과 보호, 지원을 어머니가 다 떠맡아야 하는 것인가? 주변에서 당연히 엄마라면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그런 것들에 대해 나는 계속 의문을 품게 되었다. "왜 나만(엄마만) 육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내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은 안정감을 회복해야 할 약한 상태라구!" 엄마는 전능하다는 식으로 의무감을 부여하고, 육아의 책임을 엄마에게 일임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한 최상의 관계로 비추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선 얼마나 많은 폭력과 상처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도 일을(7월부터 상담소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또 다시 시작되는 현의 전적인 의존과 투정에 나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내 안의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가해지는 나의 분노, 폭력을 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다.

물론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것은 '나'라는 인간이 가진 협소함, 이기심, 폭력성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할 '능력, 감수성, 여유, 지혜, 성찰의 힘'을 가지지 않았다. 자신의 안위와 생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말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일 뿐임을 지난 몇 달간 몸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지혜와 성찰이 아직 부족해서'라고만 말하기에는, 또 '내 속에 잠재한 폭력성의 문제'라고 원인을 밝히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사회적인 육아시스템이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신하고 그 현신을 통해 성숙하는 모성'이라는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여성도 유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요즘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적어도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아기가 태어나면 하루 4시간이상 상시 돌보줄 기관이 가까이 있고, 지역사회의 탁아소에서 마을 주민이 아이를 같이 기르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이를 위해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국가는 아동 등 약자가 쉽게 자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약자의 기준으로 바꾸는 사회를 상상해본다.

다시 내 맘 속에 떠오르는 화두.

생명, 탄생, 생존, 관계, 관계 속에서의 공존, 공존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평화롭게 내가 물려받았던 지구를 다음 세대에 게 넘겨주는 것.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같이 떠안아야 할 아주 당연한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희생하면서 가족을 지탱하고, 사회를 지탱하고, 국가를 지탱하는 구조. 그 속에 숨은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가 쏟아내는 폭력을 직접 맛본 나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 '타자'와 정말이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과 갈등하고, 부대끼면서 새로운 대안을 꿈꾸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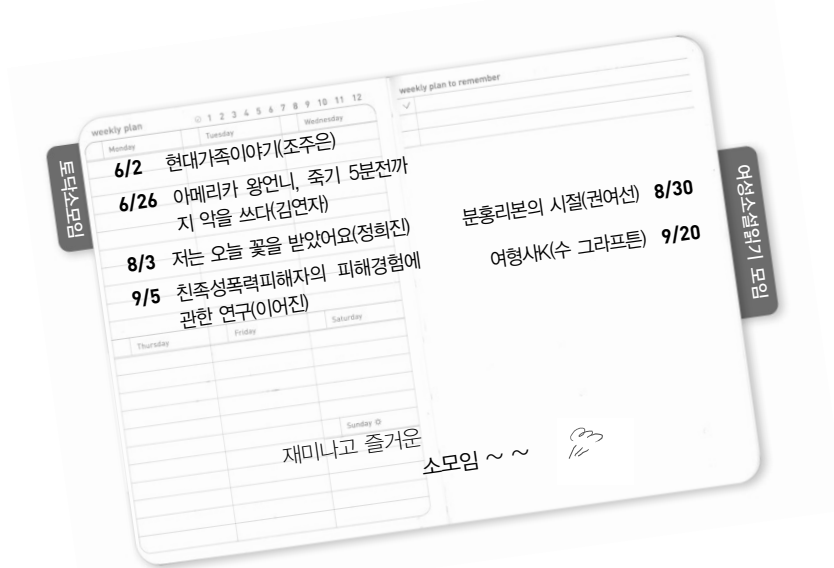


[소모임 활동]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회원님,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세요

♥ **토닥소모임** :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소모임입니다. 현재는 여성들의 경험을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모임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토닥스터디는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여성소셜읽기 모임** : 두 달여간의 휴식을 취하고, 분홍리본의 시절로 8월 30일 만남을 가졌던 여성소셜읽기 모임, 다음 모임은 9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상쾌한 초가를 토요일 아침 10시, 우리 상담소 모임터에서 수 그라프톤의 '여형사 K'를 읽고 만납니다. 이번 소셜모임에서는 여성추리소설의 세계로 빠져보려 합니다.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주저말고 오세요! ^^



----- 정말 즐겁고 끈끈한 모임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함께 하실래요?.. -----

[훈훈한 기부]

♥ 서울화력발전소 기계팀 5분이 열림터에 후원물품 전달하셨습니다.

열림터 살림에 꼭 필요한 쌀과 라면등 물품들도 주시고, 열림터 화단 청소를 맡김히 해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우리 상담소에 추석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카피플러스에서 포도 두 상자, 마포구청에서 쌀 20kg 두 포대, 마포경찰서 망원지구대에서 쌀 10kg 세 포대, 여성부 장관이 맡 치 한 상자,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김숙임 상임대표가 포도 한 상자, 홍순기 이사장이 배 한 상자, 조인섭 법률자문위원이 차레주 두 상자, 김명희 회원이 배 한 상자, 박윤숙 재정자문위원이 포도 한 상자와 현금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열림터 가족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꽃다발(영어), 다람쥐(영어), 당찬(영어), 미정(수학), 생생(수학), 아리송(영어), 이난(수학)